

정책자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朴 濟 勳



對外經濟政策研究院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朴 濟 勳

1992. 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序 言

지난해 8월의 쿠데타 실패이후 급속히 전개되어온 蘇聯事態는 급기야는 고르바초프의 辭任과 蘇聯邦의 公式解體로 이어졌다.

1990년 9월의 韓·蘇 條交 이후 두차례의 兩國頂上의 교환방문과 30억불에 달하는 經協資金의 제공 등으로 소련진출을 本格化하기 시작한 우리나라로서는 蘇聯邦의 해체와 獨立國家聯合의 출범을 실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經協資金의 제공방식과 회수 가능성 여부를 놓고 국내에서 논의가 紛紛한 상황하에서 지금까지의 對蘇經協戰略을 재검토하고 새로 결성된 獨立國家聯合이나 개별공화국과의 새로운 경제관계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本 報告書는 우선 蘇聯邦 解體의 배경을 살펴보고 그의 직접요인이 된 舊蘇聯經濟의 최근 현황, 獨立國家聯合의 중추가 될 러시아聯邦의 經濟改革 추진 상황 등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새로 결성된 獨立國家聯合의 단·장기 경제전망을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실험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經濟展望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對獨立國家聯合 및 對러시아 經濟協力の 基本방향을 간단하게 모색해 보았다. 아무쪼록 本 研究가 政策當局者는 물론 學界, 研究機關, 業界 등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分들에게 一助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 報告書는 本 研究院의 朴濟勳 博士에 의하여 執筆되었으며, 자료수집과 정리, 특히 부록편의 작성에 申榮在 研究員이, 그리고 타자에 張美善 研究助員이 수고 하였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모든 내용은 筆者 自身の 의견이며 本 研究院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2年 1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金 迪 教



目 次

I. 蘇聯邦 解體의 背景	9
1. 페레스트로이카의 失敗	9
2. 保守쿠데타의 失敗와 共産黨의 沒落	10
3. 우크라이나의 獨立	11
II. 舊蘇聯 經濟의 現況	13
1. 概況	13
2. 部門別 現況	14
III. 러시아聯邦의 經濟改革	27
1. 基本 性格	28
2. 主要 內容	29
3. 問題點	34
IV.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經濟展望	35
1. 獨立國家聯合의 性格	35
2. 獨立國家聯合의 經濟展望 시나리오	39
3. 經濟豫測	50
V. 韓·蘇 經濟協力關係의 新戰略 및 推進方向	53
1. 韓·蘇經協의 評價	53
2. 對獨立家聯合 및 對러시아 經協戰略	54

〈附 錄〉	57
1. 러시아聯邦內에서의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布告(91. 11.15)	59
2. 러시아聯邦 政府改編에 관한 布告(91. 11. 6)	62
3. 經濟改革下에서의 러시아聯邦의 政府業務組織에 관한 布告(91.11.6)	63
4. 러시아연방 經濟改革의 財政的 保障과 財政體系의 保護에 관한 決議(91. 11.15)	72
5. 經濟政策의 調整에 관한 白러시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共和國 政府 聲明 (91. 12. 9)	74
6. 舊蘇聯 共和國의 交易·投資環境 評價	76
7. 러시아聯邦內 新興 改革派 經濟官僚의 名單 및 열친 側近의 權力構造	77
〈參考文獻〉	81

〈表目次〉

〈表 1〉 1991年 1~10월의 公式 主要經濟指標	13
〈表 2〉 共和國別 登錄된 失業者數	14
〈表 3〉 食料品の 生産 現況	19
〈表 4〉 收穫하지 않은 農地面積(10월말 현재)	19
〈表 5〉 集團農場, 國營農場 및 諸企業들의 農産物 收穫量(1991. 10. 28. 현재)	20
〈表 6〉 國家 穀物 收買 現況(1991. 11. 4. 현재)	21
〈表 7〉 1991년 1~10월중 畜産製品의 收買現況	21
〈表 8〉 1991년 1~9월중 農産物 販賣率	22
〈表 9〉 1991년 主要 燃料·에너지資源의 平均 生産量	23
〈表 10〉 共和國別 石炭 備蓄高	24
〈表 11〉 價格自由化 現況 例	30
〈表 12〉 聯邦構成共和國間 製品의 搬入·搬出 現況(1988년)	39
〈表 13〉 聯邦構成共和國의 總生産 및 消費에 대한 製品 搬出入 比重(1988년)	40
〈表 14〉 聯邦構成共和國間 製品의 搬出入 相互關係(1988년)	42
〈表 15〉 聯邦構成共和國의 國內價格과 비교한 國際價格으로의 製品의 總搬出入 (1988년)	43
〈表 16〉 獨立國家聯合의 自由民主主義에 기초한 市場經濟로의 성공적 이행조건	48
〈表 17〉 舊蘇聯經濟의 成長展望	51

〈圖目次〉

〈圖 1〉 國家聯合의 範圍	46
〈圖 2〉 國家聯合의 性格	47



I. 蘇聯邦 解體의 背景

1991년 12월 26일 고르바초프의 辭任과 最高會議 해체로 공식화된 蘇聯邦의 해체는 기존체제내에서의 改革을 시도한 페레스트로이카의 실패, 1991년 8월의 保守쿠데타의 실패와 그에 따른 蘇聯 共產黨의 몰락 및 蘇聯邦 유지에 관건이던 우크라이나의 독립 등을 그 배경으로 한다.

1. 페레스트로이카의 失敗

1985년 蘇聯 共產黨 書記長에 취임한 미하일 고르바초프에 의해 시작된 페레스트로이카는 당초에는 既存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內에서의 改革을 통한 경제회복을 목표로 하였었다.

그러나 70년 이상 既得權을 누려온 共產黨 및 官僚들의 반발로 인한 經濟改革의 부진은 新思考와 Glasnost에 의한 政治·外交 및 社會 등 비경제부문을 포함한 포괄적인 改革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게 하였다. 이 결과 東西獨의 統一을 가능케 한 냉전의 종식을 비롯 蘇聯內에서의 자유화, 민주화 등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당초 기대했던 經濟改革에는 실패하여 蘇聯 經濟는 페레스트로이카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다.

이러한 經濟改革의 실패는 경제부문의 改革에 비해 政治·社會部門의 改革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改革의 추진에 긴요한 안정된 정치세력의 구축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70년 이상 구축되어온 共產黨을 중심으로 한 既得權層의 반발을 누르고 美國·日本 등 西歐와의 과학기술경쟁에서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政治·社會·情報 등 각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改革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다만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한 改革主導勢力이

改革의 완전한 청사진 특히 경제부문의 改革을 위한 구체적 代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위로부터 시작된 改革이 아래로부터의 改革欲求를 따라가지 못하게 된 점이 페레스트로이카 실패의 중요 요인의 하나라 할 것이다.

2. 保守쿠데타의 失敗와 共産黨의 沒落

經濟改革의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1990년 가을부터 본격화된 리슈코프 총리를 중심으로한 保守派와 샤탈린의 500일 개혁안으로 대표되는 急進改革派와의 갈등에서 고르바초프는 그의 「最終改革案」이라 불리는 온건개혁을 표방한 改革路線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保守派와 急進派의 양립할 수 없는 두 입장을 절충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市場經濟로의 포괄적 이행 및 공화국 권한의 대폭 강화등 기본원칙에 있어서는 그 전까지의 부분적 改革路線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1991년초의 內閣改編으로 새로 총리로 취임한 파블로프의 「經濟危機 打開案」은 이러한 절충개혁안을 기초로 聯邦政府의 주도하에 공화국간 협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경제위기를 타개해보자는 단기경제처방으로서 뿐만 아니라 市場經濟로의 중장기적 경제구조개편을 위한 단계적 經濟改革案으로서의 성격도 띠고 있었다.

8월에 각 공화국 대표들이 署名하기로 되어 있던 고르바초프의 최종 「新聯邦條約案」은 공화국에 軍事 및 外交部門을 제외하고는 내정부문 특히 경제부문에 있어서 租稅權 및 資源 所有·利用權을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共和國에 이양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었다. 따라서 聯邦政府 주도하의 改革을 주장해 온 파블로프 內閣 및 軍部 등 保守派로서는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保守勢力을 대표하는 8인 「非常國家委員會」의 구성 및 고르바초프의 연금에 의한 쿠데타 기도는 사전준비의 미비 및 열친을 중심으로한 改革派 및 民主勢力에 대한 과소평가 등으로 인해 3일만에 좌절되었다. 保守派에 의한 쿠데타 실패는 保守派의

중심세력인 共產黨의 몰락과 쿠데타 저항의 중심역할을 한 엘친을 비롯한 急進勢力의 실권장악으로 이어졌다.

쿠데타 실패이후에 열린 聯邦人民代表會議의 결정에 따라 새로 聯邦最高會議가 구성되었으며 新聯邦條約이 체결되기까지 과도체제로서 聯邦의 최고통치기구인 共和國代表로 구성되는 國家評議會(State Council; Gossovet)가 결성되었다. 經濟政策은 실라예브 前러시아공화국 總理를 委員長으로 하는 共和國間 經濟委員會가 총괄하게 되었다.¹⁾

3. 우크라이나의 獨立

쿠데타 실패 직후 수립된 과도정부하에서 고르바초프가 주력한 것은 발트3국을 제외한 舊蘇聯의 12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經濟共同體와 새로운 정치적 연방안인 소위 主權共和國聯邦의 결성을 통한 소연방의 유지·계승이었다. 이 기간 동안은 聯邦國家評議會와 共和國間 經濟委員會라는 두 조직이 과도 연방정부를 이끌어 왔으나 國防 및 原子力 관련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內政의 실권은 共和國으로 이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도연방정부는 결국 軍縮 및 對外債務問題의 對外 窓口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은 單一 憲法도 보유하지 않은 느슨한 國家聯合體라 할 수 있는 主權共和國聯邦으로 舊蘇聯을 대체하려는 고르바초프의 마지막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 직후 벨로루시의 한 국경도시 브레스트에서 전격 발표된 소위 「獨立國家聯合」 협정은 결국 고르바초프의 몰락과 蘇聯邦의 해체를 공식 선언하는 것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이에 따른 슬라브共同體 결성은 국내적으로 共產黨의 몰락

1) 과도체제에 관한 자세한 것은 *Komsomolskaya Pravda*, 1991. 9.1. 참조.

으로 聯邦을 유지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결여한 고르바초프가 우크라이나를 主權 共和國 聯邦에 참여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공화국간 갈등의 중재자라는 그의 마지막 역할에 실패한 것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간 고르바초프를 지지해 온 美國이 우크라이나의 독립지지로의 선회 등 對蘇政策을 전환한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3개 슬라브공화국으로 시작한 獨立國家聯合은 지난 12월 21일 알마아타에서 그루지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非슬라브공화국이 모두 참여하게 됨으로써 舊蘇聯邦을 대신하는 새로운 공화국간 조직으로 정식 출범하였다.

II. 舊蘇聯 經濟의 現況

1. 概況

지난해에 舊蘇聯 經濟는 90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여 파탄상태에 이르

<表 1>

1991년 1~10월의 公式 主要經濟指標

單位：前年同期對比 增加率¹⁾

	'90							'91 ²⁾ (추정)
	1-3월	1-6월	1-9월	1-10월	8월	9월	10월	
生産國民所得, 不變價格	-10.0	-12.0	-13.0	-13.5				-14.7
工業總生産(勞動, 서비스), 不變價格	-5.0	-6.2	-6.4	-6.8	-8.0	-6.2	-9.9	-9.0
國民生必品生産	-2.0	-4.5	-3.7	-4.0				
企業都賣價格	83	100	117	123	154	164	174	
畜産物 購買								
- 家畜 및 家禽(生重量)	-14	-13	-12	-12	-13	-5	-16	
- 우 유	-12	-13	-13	-13	-13	-12	-12	
貨幣所得	26	44.5	70	76	92	2.15*	2.25*	
貨幣支出	26	35	47	52	69	75	87	
剩餘所得	27	2.3*	3.7*	4*	3.4*	9.2*	10*	
小賣商品流通								
- 不變價格	-0.2	-11.7	-11.5	-10.9	-12.5	-10.2	-7.9	
- 經常價格	25.4	36.6	50.8	56.7	76.0	84.6	98.1	
住民의 서비스 支拂								
- 不變價格	0.2	-15.2	-18.8	-18.6	-18.5	-24.6	-17.3	
- 經常價格	9.4	18.3	24.9	27.6	44.4	35.6	52.1	
商品·서비스의 小賣								
價格指數 및 料率	23.8	56.0	72.0	76.5	99.5	103	111.9	
對外貿易去來(經常價格)	-31.4	-38.3	-38.1	-37.1	-38.2	-46.3	-24.6	-28.0

註：1) 貨幣流通 및 特定但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발틱공화국을 제외한 經濟指標임.

2) 91년 推定值엔 발트 3개 공화국이 포함됨.

* 倍數 增加

資料：Goskomstat S.SSR (1991) 및 Institut Ekonomicheskoy Politiki (1991)

렀다. 10월까지 生産國民所得 成長率이 -13.5%였으며 연말까지 -14.7%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蘇聯 國內외의 비공식 추정으로는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8월 쿠데타 이후 共産黨의 몰락과 聯邦 붕괴에 따른 행정조직 및 공화국 간 분업체계의 파괴가 蘇經濟를 파탄상황으로 몰고간 주원인이었다.

工業生産에서는 電力生産, 製鐵, 시멘트, 機械製作, 化學 등 전분야에서 감소폭이 90년보다 확대되어 연말까지 -9.0%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農業生産도 -7.0% 감소하였으며 農産物의 국가수매도 90년의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여 食糧難의 주원인이 되었다.

物價도 10월까지 90년 대비 274% 인상되었으며 12월중의 價格自由化 措置 실행 발표에 따른 투기현상으로 연말까지는 인플레이率이 300~400%까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對外去來에 있어서도 外換事情의 악화에 따른 輸入減少가 주원인이 되어 연말까지 대외무역 총액이 28.0%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共和國의 聯邦財政으로의 재정충당 불이행, 稅收減少 등으로 지난해 財政赤字 規模가 GNP의 20%를 웃돌았다.

2. 部門別 現況

다음에는 지난해 11월말에 발표된 蘇聯 統計委員會의 월별 공식통계보고서에 따라 10월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부문별 현황을 살펴보겠다.²⁾ 聯邦解體에 따른 政治·社會·行政的 混亂으로 10월말까지의 실적에 비해 연말까지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2)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部門別 現況의 모든 表는 Goskomstat SSSR (1991)을 資料로 하였음.

(1) 인플레이의 深化

지난해 4월의 小賣價格改革으로 物價가 평균 60% 인상된 이후 企業의 工業都賣價格指數(去來稅 제외)는 1~10월중 223%를 포함하여 10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74%였다.

9월과 비교하여 10월의 價格水準은 평균 3~4%인상되었다. 10월에 연료·에너지 콤플렉스, 비철금속, 건설자재부문의 價格은 매우 적은 폭으로 변화되었고 일부부문(전력, 가스, 석탄)은 실제적으로 9월 수준보다 인하되었다.

제철, 기계제작, 화학, 목재콤플렉스 企業製品的 都賣價格은 10월중 평균 5~6%인상되었다. 일부부문(제철, 합성수지, 플라스틱제품, 고무공업, 디젤엔진제작, 기구제작, 베어링 등)의 인상율은 10~15%로 현저히 증가하였다. 輕工業部門의 價格은 피혁 및 필름재료,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 공업제품의 8~12%를 포함하여 월평균 7~9% 증가했다.

1~10월중 전년동기와 비교한 旅客運送料金은 철도운송 69.8%, 자동차 24.3%, 지하철 58.9%, 해상운송 1.8%, 내륙수로운송 24.3%, 항공운송 18.6%를 포함하여 총 41.4% 인상되었다.

금년 1~10월중 小賣商品流通 및 서비스 支拂을 포함한 小賣價格指數 및 料金은 176.5%(10월 211.9%) 인상되었고, 그 중 상품은 179.5%(10월 215.7%), 서비스는 156.9%(10월 184%)가 인상되었다.

특히 감자, 야채, 과일류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되었다. 10월에 야로슬라브, 모스크바, 아스트라한, 벨고로드, 하리코프, 타쉬켄트, 키쉬네프 등의 국영시장에서의 감자는 킬로그램당 2루블 20코페이카-2루블 90코페이카에 판매되었고, 두산베, 블라디보스톡, 크라스노야르스크, 무르만스크, 볼고그라드, 노브고로드에서는 킬로그램당 3루블-3루블 70코페이카로 전년 10월에 비해 6.15배 인상되었다.

(2) 失業

발틱共和國들을 포함한 소련 전체의 總雇用者數는 1~10월중 약 1억 3천 6백만명이었다. 國家所有를 기초로 만들어진 賃貸 및 株式會社, 經濟協會 및 그밖에 혼합적인 生産單位들에 작년의 4백만에 비해 1천 4백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國營經濟部門의 종사자의 比重은 전년동기의 79%에서 73%로 낮아졌다.

私企業 및 個人企業(農場經營, 個人副業經營, 請負契約 勞動) 분야의 고용자수는 증가하였고 그들의 총노동인구에 대한 비중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3.6%에서 5%로 증가하였다.

非雇用人口(季節勞動者, 主婦, 育兒, 失業者 및 기타 노동하지 않는 者)는 약 1천만명이다. 蘇聯國家統計委員會가 算定한 실업자수는 2백만명으로 失業에 대한 공식통계가 지난 6월부터 추계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실제 失業者數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1000만명 정도로 추산하는 비공식통계도 있다.

10월말 현재 全共和國(발틱공화국 제외)의 해당 職業紹介所에 따르면 직업을 찾는 非雇用 노동활동 시민이 “고용에 관한 연방 및 공화국 기본법”(7월 1일 시행)의 도입전보다 27%이상 증가한 1백만명이상으로 등록되어 있다. 각 공화국별 등록된 실업자수는 아래의 표와 같다.

新雇傭法에 규정된 비고용주민의 직업교육 및 재교육은 극히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10월말 현재 교육받은 사람 數는 3천명에 불과하다.

〈表 2〉

共和國別 登錄된 失業者數

單位：各月末, 천명

區 分	6월	8월	9월	10월
러시아共和國	16.1	25.4	46.5	51.4
우크라이나共和國	1.4	2.5	3.7	4.9
白러시아共和國	0.3	0.5	1.0	1.3
카자흐共和國	0.9	1.2	2.0	2.9
키르기즈共和國	0.1	0.2	0.1	0.1

(3) 財政赤字

91년도 국가재정은 生産活動의 침체, 對外經濟活動 收入의 감소, 가격인상의 증대와 불완전한 租稅體系 등으로 파탄상태에 직면했다.

9개월동안 재정적자는 3천 2백 4십억루블 증가하여 10월 1일 현재 8천 9백억루블에 이르렀다. 農産物 價格의 차이에 따른 銀行으로부터의 豫算 借入金은 759억루블이었다.

9개월동안 聯邦豫算赤字는 전년동기의 373억루블에 반해 890억루블로 증가하였고, 同 기간중 계획된 적자폭은 211억루블이었다.

1~9월중 聯邦歲入은 全聯邦프로그램을 위한 공화국예산으로부터의 資金充當 184억루블(60.6%), 利潤稅 86억루블(39.1%), 販賣稅 65억루블(24.2%), 대외경제활동 소득 206억루블(34.5%), 手數料 및 다양한 非租稅所得 192억루블(119.5%)를 포함하여 802억루블로서 9개월간 계획의 45.3%에 불과했다.

상반기 聯邦歲入은 월평균 84억루블, 7~8월은 115억루블이었으나 9월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공화국으로부터의 聯邦豫算充當金, 手數料 및 다양한 비조세소득의 상각등의 원인으로 聯邦歲入이 65억루블에 불과했다.

1~9월중 연방세출은 군사비 지출 700억루블(全支出의 41.4%), 국민경제의 재정용자 232억루블(13.7%), 과학 96억루블(5.7%), 국내채 상환 54억루블(3.2%), 사회·문화정책 162억루블(9.6%), 권력·행정·공안기관의 유지비 89억루블(5.3%), 대외경제활동과 관련된 지출 81억루블(4.8%), 특수목적의 프로그램 73억루블(4.3%) 등 1,692억루블로서 9개월간 계획의 85.4%이었다.

聯邦豫算으로부터 社會保障基金을 위한 支出은 10월초 46억루블(9개월간 계획의 60.7%)이었다. 10월 1일 현재 聯邦經濟安定化基金은 기업 拂入金 67억루블, 은행신용 222억루블, 예산충당금 40억루블 등으로 모두 329억루블이 불입되었다. 同 基金으로부터의 지출은 318억루블로서 중앙집권적인 資本投資 159억루블, 공화국정부에 대한 補助金은 142억루블이었다. 연방 경제안정화기금으로 불입한 企業資金은 러시

아공화국 59억루블, 우즈베크공화국 4억 1천 6백만루블, 우크라이나공화국 9천 6백 6십만루블, 몰다비아공화국 1천 2백만루블, 키르기즈공화국 9천 4백만루블, 타직공화국 1억 3천 5백만루블 등이다. 나머지 공화국들은 자금을 불입하지 않았다.

기업 및 조직들의 재무구조의 혼란은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企業에서의 價格引上은 정상이윤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되어 1~9월간 전년동기와 비교한 이윤은 대략 2배로 2천 8백억루블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윤의 증대는 마찬가지로 原資材 價格, 賃金, 利子 등을 동시에 인상시켜 기업 및 조직들의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전년동기와 비교한 1~9월중의 完製品의 工業都賣價格은 2.2배 인상되었으나 동기간중 原資材의 價格指數도 214% 이었다.

(4) 食糧不足

1) 農產物 生産 減少

현재 각 지방에서는 심각한 食糧供給不足 상황과 관련하여 居住地 住民에 대한 배급표, 양권, 명부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0월 들어 육류제품의 공급에 대해, 러시아공화국은 51개 지역, 카자흐공화국은 13개 지역에서 식물성버터는 러시아, 카자흐, 우즈베크공화국내의 60~90%의 지역에서 각각 배급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麥粉의 배급표는 카자흐공화국 州의 1/2, 러시아공화국 州의 1/3, 타직, 투르크멘, 몰다비아, 키르기즈공화국의 모든 州에서 시행하고 있다. 설탕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表 3>

食料品の 生産 現況

單位 : 千톤

區 分	1991년 1 - 10월		10월	
	전체	90년동기대비, %	전체	90년 10월대비, %
肉類(加工製品)	7,807	88	898	88
소세지製品	2,844	92	318	96
漁類등조림을 포함한 食用漁類製品	3,645	91	366	87
純乳製品, 牛乳로 換算 (백만톤)	24.7	90	2.3	89
동물성버터	1,281	87	85	92
未加工 脂肪	629	87	52	87
마아가린제품	915	78	91	74
굵은 설탕	6,587	84	2,362	87
식물성버터	2,462	96	278	94
과자류	3,726	90	411	89
빵 및 빵제품, 백만톤	25.6	104	2.74	100.3
麥粉, 백만톤	29.7	100.7	3.2	97
搗精한 穀物	3,616	98	401	99.2
마카로니製品	1,575	107	178	109
통조림, 10억통	13.2	87	1.5	77
- 과일 · 야채통조림	9.3	87	1.0	75
鑛泉水, 천만리터	102	78	8.6	81
비알콜음료, 천만리터	365	77	22.0	78

1991년 11월 1일 현재 겨울·봄 판매를 위해 준비된 장기 저장용 감자 및 야채의 총량은 작년동기에 비해 각각 97%, 86% 수준에 머물고 있다.

<表 4>

收穫하지 않은 農地 面積(10월말 현재)

單位 : 千ha

區 分	全共和國의 收穫하지 않은 전체 耕地 面積	共和國의 收穫하지 않은 面積		
		러 시 아	우크라이나	카 자흐
穀勿 및 豆穀類(옥수수 제외)	6,829	3,062	311	3,143
해 바 라 기	432	281	71	67
사탕무우(工場)	402	64	299	10
감 자	86	37	15	5
야 채	182	64	51	10

가을收穫을 완료한 10월말 현재 탈곡한 穀物 및 豆穀類面積은 9천3백20만ha(전 경작지의 93%), 사탕무 수확은 2백70만ha, 해바라기는 4백만~4백50만ha이다.

카자흐공화국은 18만 7천ha에 이르는 해바라기 재배면적중 12만ha에 달하는 64%만이 수확되었다. 우즈베크공화국은 1만 4천ha에 이르는 야채(全播種面積의 18%)가 수확되었고, 백러시아는 4천ha(14%)가 수확되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농산물의 총수확량도 다음 <表 5>와 같이 全品目에서 감소했다.

<表 5> 集團農場, 國營農場 및 諸企業들의 農産物 收穫量(91. 10. 28. 현재)

區 分	전체 수확량, 백만톤		1ha당 평균수확량, 100kg	
	1990년	1991년	1990년	1991년
곡물, 최초의 중량(옥수수제외)	212.4	151.3	21.8	16.2
옥 수 수 알	6.1	5.4	36.9	31.4
해 바 라 기	5.6	5.2	16.1	13.0
사 탕 무 우	76.1	57.7	271	214
감 차	20.2	16.3	103	99
야 채	13.4	10.4	158	141

2) 農産物 收買 減少

11월 4일 현재 국가에 대한 곡물판매는 2천 7백 10만톤으로 지난해의 3천 8백 70만톤과 비교할 때 41% 감소했다. 발틱공화국의 곡물의 국가판매량은 86만 3천톤으로 전년에 비해 25%이상 하락하였다. 탈곡한 전체곡물중 국가에 판매한 곡물의 비중은 1990년 32%였던 것에 반해 27% 수준에 머물렀다. 곡물의 收買는 4천 8백만톤이 필요하나 약 2천 7백만톤에 그쳤다.

기타 油脂作物의 수매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종자용 콩은 목표의 67%, 피마자 26%, 아마열매 9%, 겨자 75%만이 이행되었다.

〈表 6〉 國家 穀物 收買 現況(1991. 11. 4. 현재)

단위 : 천톤

區 分	1990년	1991년	90년대비 91, %
밀	40,237	22,890	57
호 밀	9,353	5,677	61
보 리	8,757	5,102	58
수 수	1,838	718	39
모 밀	456	306	67
쌀	1,454	1,303	90
옥 수 수	1,383	1,547	112
완 두 콩	1,201	344	29

감자의 수매는 그루지야 52%, 몰다비아 50%, 우크라이나 44%, 카자흐 34%, 백러시아 13%의 하락을 포함하여 전공화국에서 감소하였다.

한편, 가축사료의 생산은 단지 백러시아공화국만이 개선되었고, 카자흐 44%, 그루지야 17%, 러시아 및 타직 11%, 우크라이나공화국이 10% 감소하였다. 지난 10개월간 집단농장, 국영농장 및 제기업들은 肉類 1천5백20만톤(生重量), 牛乳 6천4백만톤, 달걀 456억개를 생산하였다. 이것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육류 1백80만톤(11%), 우유 7백만톤(10%), 계란 15억개(3%)가 감소한 것이다.

〈表 7〉 1991년 1~10월중 畜産製品의 收買現況

단위 : 천톤

區 分	1990년	1991년	91년/90년, %
家畜 및 家禽(生重量)	16,760	14,729	88
牛 乳	63,828	55,810	87

〈表 8〉

1991년 1~9월중 農産物 販賣率

단위 : 전체 판매량중 점유율, %

區 分	國 家 調達機關	消 費 協同組合	私有商店을 통한 市場에서의 販賣	工業 製品 및 서비스의 生産者와의 直接 契約
穀 物	77	0.4	9	0.8
油 脂 作 物	93	1.4	4.4	1.1
감 자	56	23	14	0.5
야 채	76	14	8	0.1
家畜 및 家禽	87	2	4	0.5
牛 乳	99	0.2	0.3	0.02
달걀	92	4	3	0.3

農産品の 판매는 실제로 대부분 農機械 및 其他工産品の 구입수단으로서 이
용되었다.

(5) 運送體制의 問題點

蘇聯의 현 食糧危機는 農産物の 生産 및 收買不振 외에 運送體制의 마비에도 큰
원인이 있다.

1~10월중 總貨物運送 利用量은 전년동기와 비교하여 7.5% 감소한 93억톤으로 그
중 철동운송 29억톤(8.2% 감소), 자동차 47억톤(3%), 파이프운송 9억 7천 3백만톤
(4.7%), 해상운송 1억 3천 8백 90만톤(9.1%, 발틱공화국 國籍船 제외), 내륙수로운
송 5억 8천 80만톤(8.7%), 항공운송은 2백 20만톤(13.3%)이었다.

철도를 이용한 화물운송은 1990년 1~10월과 비교하여 모든 화물이 감소하였는데
코르크스는 17.9%, 비철금속 15.9%, 철광석 및 망간 14.8%, 비철금속 부스러기 13.
8%, 석탄 11.9%, 탈곡한 곡물 11.4%, 목재 11.3%, 화학 및 광물성비료 9.1%, 시멘트
4.1%, 석유 및 석유제품이 3.3% 감소하였다. 송유관을 통한 석유운송은 석유 채굴량
의 하락과 관련하여 10.1% 감소하였다.

1~10월중 여객운송 총이용자수는 전년동기에 비해 7.7% 감소한 410억명이었다.

여객운송거리는 8천 702억km로 전년동기보다 7.7% 감소하였다. 그중 철도운송은 3,086억km(10.2% 감소), 자동차 3,657억km(6.0%), 항공기 1,904억km(6.3%) 등이었다.

(6) 燃料, 에너지 生産 減少

주요 연료·에너지자원의 채굴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10월중 석탄채굴량은 코우크스 20%, 석유, 가스제품의 10% 하락을 포함하여 11% 감소하였다. 1~10월중 가스채굴량은 전년동기의 수준을 유지했으나 단지 10월에만 2% 감소하였다.

지금까지의 연료·에너지자원의 채굴감소는 物的·技術的 資源의 결핍, 현대식 기술설비 및 생산시설 도입의 부족에 기인한다.

<表 9> 1991년 主要 燃料·에너지資源의 平均生産量

	1/4분기	2/4분기	3/4분기	10월	9월대비 10월,%
가스응축액을 포함한 석유제품, 천톤					
-1990년	1,615	1,595	1,548	1,518	99.3
-1991년	1,471	1,436	1,394	1,367	99.5
-90년대비 91년, %	91	90	90	90	
천연가스, 백만 m ²					
-1990년	2,339	2,183	2,097	2,269	105
-1991년	2,347	2,184	2,094	2,231	104
-90년대비 91년, %	100.3	100	99.9	98	
석탄, 천톤					
-1990년	2,121	2,000	1,850	1,939	104
-1991년	1,906	1,757	1,665	1,733	103
-90년대비 91, %	90	88	90	89	

1~10월중 석탄생산은 쿠즈네츠탄전 1천 6백 10만톤(14%), 도네츠크탄전 1천 3백 30만톤(12%), 카라간딘스크탄전 2백 60만톤(7%), 보르쿠친스크탄전 1백 90만톤(19%)의 감소를 포함하여 총 3천 9백 20만톤(7%)상당의 공급계약이 이행되지 못했

다.

금속야금부문 기업들은 1~10월중 쿠즈네츠 6백 80만톤(19%), 도네츠크 5백 90만톤(16%), 보르쿠친스크 1백 80만톤(22%), 카라간딘스크 90만톤(6%)를 포함하여 1천 5백 80만톤의 코우크스용 석탄을 공급받지 못했다. 공화국들의 농공콤플렉스는 러시아공화국 75만 1천톤(5%), 카자흐공화국 94만톤(14%), 백러시아공화국 16만 8천톤(42%)을 포함하여 1백 80만톤의 석탄이 부족했다.

〈表 10〉

共和國別 石炭備蓄高

단위 : 천톤

	91.11.1. 현재 실질비축고	90년 11월대비, %
러시아공화국	36,910	92
우크라이나공화국	5,566	83
백러시아공화국	302	73
우즈베크공화국	1,580	137
카자흐공화국	9,204	99.4
그루지야공화국	141	65
아제르바이잔공화국	4	77
몰다비아공화국	513	118
키르기즈공화국	616	97
타지공화국	30	102
아르메니아공화국	10	62
투르크멘공화국	13	66

연방전력부의 발전소 및 기타조직들의 석탄비축고는 11월초 현재 러시아공화국 2천 2백 80만톤(98%), 우크라이나공화국 2백 70만톤(83%), 카자흐공화국 3백 50만톤(111%), 우즈베크공화국 1백 30만톤(138%) 등을 포함하여 지난해의 비축수준의 99%인 3천 1백 40만톤이었다. 금속야금공업부문 기업들의 코우크스용 석탄 비축고는 전년동기에 비해 41% 감소하였다. 동 감소폭은 러시아공화국이 42%, 우크라이나공화국이 33%, 카자흐공화국 62%, 그루지야공화국 85% 등이다.

소비자의 난방용 重油의 비축량은 1천 5백만 60만톤으로 전년동기의 11월보다 3%

감소하였다. 同 備蓄分은 지난해의 41일분에서 40일분으로 감소하였다. 연방전력부 산하의 발전소 및 기관들의 전력생산용 중유 비축량은 6백 80만톤으로 전년동기보다 80만톤(13%)이 증가하였다. 그중 러시아공화국이 4백만톤(17%), 우크라이나공화국 60만톤(12%), 백러시아공화국 50만톤(42%), 우즈베크공화국이 30만톤 (25%) 증가하였으나 카자흐공화국은 1만 9천톤(6%)이 감소하였다.

1~10월중 發電量은 전년동기에 비해 2% 감소하여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 투르크멘공화국을 제외한 모든 공화국에서 발전량이 감소하였다. 소비를 위한 전력공급의 어려운 상황은 카프카즈, 시베리아, 카자흐스탄, 중앙아시아와 또한 치타 및 브리야트지역의 發電所에서도 나타났다.

1~10월중 전력생산고는 10월의 1,090억kw/h를 포함하여 총 1조 1,110억kw/h로 전년동기에 비해 각각 46억kw/h(4.7%), 199억kw/h(1.8%) 감소하였다. 工業生産의 감소와 온난한 기후로 인해 10월까지 電力消費는 감소했다.

(7) 對外經濟活動 萎縮

1~10월중 蘇聯의 對外貿易去來 총액은 1,241억외화루블(상업환율 적용)로서 전년동기에 비해 731억루블(37.1%) 감소하였다. 지난 10개월동안 輸出은 652억외화루블로 30.7%, 輸入은 589억외화루블로 42.9% 감소하였다. 10월의 수출입거래액은 8월에 129억외화루블, 9월 139억외화루블이었던데 반해 115억외화루블에 그쳤다.

1~10월중 대외무역 黑字는 63억외화루블(전년동기에는 90억외화루블의 赤字였음)에 달했다. 前코메콘 가맹국들에 대한 수출이 특히 감소하였는데, 이들 국가들과의 1~10월중의 총수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190억외화루블(55.4%), 수입은 237억 외화루블(55.9%) 감소하였다. 同 國家들과의 금년도 貿易收支 赤字는 6억외화루블이다.

금년도 資本主義國家와의 貿易去來는 대외채무상환의 어려움등으로 輸入(32.8%)은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들 국가로의 수출(16.8%)도 감소하였다. 따라서 同 國家들과의 무역에서는 67억외화루블의 黑字를 기록했다.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10개월간 총수출중 러시아공화국 80.38%, 우크라이나공화국 10.51%, 백러시아공화국이 3.68%를 각각 차지했고, 총수입에서의 점유율은 각각 61.13%, 15.81%, 4.71%이다. 지난 10개월간의 총수출은 정해진 年間輸出計劃額의 83%에 이른다.

칼리비료, 메탄올 및 니켈은 同 水準을 초과(84~98%)하여 輸出되었고, 가스 및 석유의 輸出實績은 각각 計劃值의 77%와 70%였고, 경승용차, 銅, 사무용품재는 67~62%, 철광석, 석탄, 합판, 트랙터, 판지는 54~38% 수준이었다.

광석용 용제, 코우크스, 주철, 압연강재, 암모니아, 시멘트, 製材木, 貨物自動車 등의 제품은 연간 計劃值의 37%의 수출에 그쳤다.

90년 同期와 비교하여 수출에 있어 석탄 7백 50만톤(26%), 금속야금용 코우크스 90만톤(63%), 原油 5천 2백60만톤(55%), 精製石油 9백만톤(21%), 주철 1백 50만톤(34%), 철과 다른 물질합금(ferrosplav) 30만톤(40%), 철 1백 80만톤(30%), 목화섬유 7만 4천톤(18%)가 각각 감소하였다.

外換管理의 강화로 輕工業, 식료품공업과 국민생활품 생산을 위한 원료 및 설비의 輸入이 감소되었다. 현재 식료품, 섬유, 봉재, 피혁, 제화공업 등의 생산에 있어 輸入設備 및 原料의 比率이 90년 7% 였던 것에 반해 작년은 3%로 감소되었다.

작년 1~10월간 구상무역 거래총액은 58억외화루블로서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59% 증가하였다. 이 중 輸出은 37억외화루블(총수출의 5.6%), 輸入은 21억외화루블(총수입의 3.6%)로서 수출이 수입을 1.7배 초과하였다. 同 형태의 무역은 주로 中國(6억 5천 7백만외화루블), 네덜란드(3억 6천 1백만외화루블), 이탈리아(3억 2천 6백만외화루블), 유고슬라비아(3억 9백만외화루블), 폴란드(2억 7천 3백만외화루블), 독일(1억 3천 8백만외화루블), 벨기에(1억 6천 1백만외화루블), 체코(1억 2천만외화루블), 일본(1억 3백만외화루블), 불가리아(7천 2백만외화루블) 등과 이루어졌다.

Ⅲ. 러시아聯邦의 經濟改革

러시아에서의 經濟改革은 지난해 8월의 쿠데타 실패이후 10월 28일 옐친 대통령에 의해 제5차 人民代表會議에서 急進經濟改革案이 발표됨으로써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經濟政策을 둘러싼 러시아내의 정부와 의회, 정부내에서도 대통령 비서실 (Administration:비서실장 Yuri Petrov), State Council(State Secretary:Gennady Burbulis) 및 內閣(首相은 당시 공석, 경제부 장관 Evgeniy Saburov)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속한 經濟改革案의 확정과 실행이 요구되는 반면 蘇聯邦 共和國間的 경제 공동체 결성의 관건을 권 우크라이나가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러시아만의 독자적 經濟改革 실시의 필요성이 높아지던 상황이었다.

그 이후 옐친 대통령은 이고르 가이다르 前經濟政策研究所長을 經濟改革을 총괄하는 副總理兼 經濟·財務長官에 전격 임명함으로써 부르불리스·가이다르 및 쇼힌 노동부 장관으로 구성되는 3두체제로서 內閣을 새로 개편하였다.³⁾ 그러나 여기서도 내각을 책임질 총리를 옐친 자신이 겸직함으로써 經濟改革의 결과를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11월 15일 발표된 對外經濟活動自由化法은 가이다르 경제팀의 첫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동팀은 價格自由化의 실행과 함께 民營化 및 土地 私有化法 등 일련의 急進經濟改革政策을 발표해 오고 있다.

3) *Nezavisimaya Gazeta*, 1991. 11. 9.

1. 基本 性格

가이다르 경제팀에 의한 러시아연방의 經濟改革政策의 기본 성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기존 急進經濟改革路線의 延長

러시아 經濟改革政策은 많은 부분에 있어 종전의 500일 改革案 등 急進經濟改革案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500일 改革案과 달리 종합적인 經濟改革프로그램이 아니라 價格自由化와 私有化 등에 관한 기본 방향만 설정한 후 구체적인 政策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실행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 獨自路線

가이다르 경제팀의 등장은 연방유지하의 공화국간 協力을 보다 강조한 Saburov 와의 經濟改革路線을 둘러싼 정부내의 투쟁에서의 승리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러시아만의 독자적 經濟改革의 우선적 추진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독자노선은 러시아가 舊聯邦과 같은 체제하에서는 여타 공화국에 의해 경제적으로 희생만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하지만 價格自由化 등을 러시아에서 먼저 실시할 경우 여타 共和國도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여타 공화국의 經濟改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3) 巨視均衡 強調

가이다르팀을 蘇聯 및 러시아 政府 최초의 巨視經濟팀이라고 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民營化나 獨占解體 등 장기적인 構造調整政策보다는 價格自由化 및 財政緊縮 등

을 통한 巨視·金融均衡의 달성을 최우선 과제로 한 단기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聯邦 경제팀은 방만한 財政運營 및 通貨增發로 거시균형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4) 衝擊療法

이전까지 제기되어온 急進經濟改革案이 최소 2년정도의 기한을 가진 일정 時間表下에 단계적으로 經濟改革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면 가이다르팀이 내세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價格自由化를 비롯해 對外活動 및 外換自由化 등 단기적으로 가능한 정책을 전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1년 이내에 經濟의 巨視均衡을 회복시켜 보자는 衝擊療法이라 할 수 있다.

2. 主要 內容

당초는 작년 12월중에 價格自由化가 실시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貿易 및 外換自由化가 실시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蘇聯邦의 解體와 獨立國家聯合의 출범으로 價格自由化시기가 늦어져 금년 1월 2일부터 실행되었다.

한편 民營化나 土地私有化法 등도 당초 예상보다는 빨리 價格自由化 실시와 더불어 1월초에 발표되었다.

(1) 價格 自由化

電力·石油 등 기초적 생산재 품목 7개와 市民生活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빵·우유 등 基礎消費財品目 13개에 대해 價格上限을 두는 것을 제외하고는 全品目에 대해 1월 2일부터 價格自由化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통제상품도 이번 價格自由化

措置와 함께 3~5배 가까이 인상됐다.

그러나 상한이 없는 품목도 原價의 25% 이상 이익을 붙이지는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價格自由化措置는 그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된 小賣價格을 현실화시킴으로써 이미 상당부분 현실화된 都賣價格과의 衡平을 맞추는 한편 財政赤字의 주요인의 하나였던 價格補助金을 폐지하는 효과가 있다.

금번 價格改革과 동시에 20%에 상당하는 附加價値稅가 도입됨으로써 실제 가격인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表 11〉

價格自由化 現況 例

단위 : 루블

區 分	品 目	新 價 格	昨 年 末 價 格
統制 商品	보트카 (1병)	48	10
	유 유 (1병)	品切	0.65
	감기약 (10알)	0.76	0.19
	흰 빵 (1개)	1.75	0.6
	철도운임(모스크바-키예프)	60	30
	항공료(모스크바-블라디보스톡)	552	184
自由 商品	버 티 (1Kg)	180	120
	달 갈 (10개)	12	12
	패지고기 (1Kg)	50	50
	소세지 (1Kg)	140	140
	당 근 (1Kg)	2.5	2.5
	사 탕 (1봉지)	2.94	0.46
	연 어	192	60
	오렌지 (1Kg)	21.35	7
	피 자	5 倍	
	삼페인 (1병)	156	8

資料 : 産經新聞, 1992. 1. 3.

(2) 民營化

러시아 聯邦의 民營化 프로그램은 작년말 러시아의회에서 승인된 이래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고 있지 않으나 기본내용은 작년 여름 이미 발표된 바 있는 私有化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基本目標

長期·戰略的 構造改革을 위한 기초로서 뿐만 아니라 價格自由化로의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을 기본목표로 함으로써 그간 價格自由化 선행 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어온 것에 대한 보완조치의 성격도 띠고 있다.

2) 實行機關

러시아 聯邦內閣에 이미 國家所有委員會(Russian State Committee on Property:위원장 Anatoly Chubais)가 있으나 民營化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해 별도의 國家財産機構(State Property Agency)를 두고 각 地方이나 市에 支部를 설치키로 되어 있다.

3) 段階·部門別 計劃

民營化는 크게 금년 1월 2일부터 내년 3/4분기까지의 1단계와 내년 중반에 시작될 2단계로 나눈다. 또한 民營化 對象企業도 1992년에 民營化 될 수 있는 企業, 鑛物資源, 銀行, 鐵道, 民間航空, 電氣에너지, 放送 및 武器産業 등 民營化 대상에서 제외되는 企業 그리고 原油, 가스생산, 製藥, 酒類, 담배, 유아식품, 그리고 만명이상 고용기업 및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2억루블 이상의 資産을 가진 기업 등 特定許可下에 民營化 될 수 있는 企業 등으로 크게 3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食品産業의 60%(230억루블 상당), 建設産業의 70%(132억루블 상당), 輕工業의 70%(106억루블 상당), 小賣商店의 60%(100억루블 상당) 및 미완성 건설 프로젝트의 20%(70억루블 상당) 등을 民營化할 계획이다.

4) 期待 效果

民營化 計劃에서는 1992년에 民營化로부터의 收益이 920억루블, 1993년에 3000억~3500억루블, 1994년에는 4700억~5000억루블까지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賣却收入의 20%는 社會保障支出로 쓰인다.

5) 具體 方法

勞働者들은 會社株式의 25% 상당의 우대주식을 분배 받고 30% 할인율로 추가 구입할 수도 있다. 外國人이 企業을 매입할 경우 매입가격의 10%는 勞働者에게 분배된다. 外國人도 企業競賣에는 참여할 수 있으나 정부허가 부문의 기업일 경우 內國人和 똑같이 政府承認을 받아야 하며 전략부문일 경우 일정비율내로 株式買入이 제한 될 수 있다.

6) 集團農場 民營化

이밖에 열린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2월 28일 土地改革法案에 서명함으로써 集團農場은 소속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公企業, 組合 또는 코페라치프(協同組合) 등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個人에 분배될 수 있게 되었다. 農民들은 無料로 농토를 분배받게 되며 상속 및 매각도 가능하게 되었다.

사실 지난해 중반에 이미 土地改革法은 승인되었으나 보수적인 지방관리들의 반발로 그간 집행이 미루어오다가 작년말 러시아 議會의 승인을 거쳐 금번에 실행령이 발표된 것이다. 實行令에 따르면 2월 1일까지 地方政府 당국은 自營農을 원하는 集團農場所屬 農民들을 위해 농장규모나 기타 기준을 조속히 설정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重한 制裁措置를 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 對外經濟活動 自由化

열린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1월 15일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포고령을 발

표하여 금년 1월 2일부터 실시되는 價格自由化에 발맞추어 對外貿易 및 外換部門에 있어서도 自由化 措置를 실시하였다.⁴⁾

1) 對外貿易의 自由化

그간 舊蘇聯體制下에서 聯邦對外經濟部 및 소수의 對外貿易公團(FTO)에 의한 對外貿易의 독점이 많이 완화되어 一般企業도 對外貿易活動에 직접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중개활동은 금지되었으며 많은 품목에 있어서는 輸出入許可나 數量制限(Quata)이 있어 왔다.

이번 조치로 중개활동을 포함하여 모든 對外經濟活動에는 특별한 등록이 필요 없게 되었으며 輸出入許可나 수량제한도 극히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키로 되었다. 그러나 企業의 外貨收益의 일부에 대한 의무매각은 당초 초안에서 후퇴하여 지속키로 하였다.

2) 루블의 對內兌換性 確保

루블의 對內兌換性 확보를 위해 루블 換率은 商業銀行과 기타 法人 및 市民들이 外貨를 매매하는 경매소, 거래소 및 금융시장에서의 수요·공급에 기초하여 이루어 지도록 하여 기본적으로 複數換率制의 폐지 및 換率自由化를 지향하고 있다.

3) 國內 外貨使用 禁止

對內兌換性確保를 위한 또 하나의 조치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내에서의 法人과 市民 사이 또는 시민간의 외화의 결제와 지불을 금지시킴으로써 러시아 시장의 달러化(dollarization)를 방지하려 하고 있다.

1992년 7월 1일까지 잠정적으로 러시아내에서의 市民들의 小賣商業과 서비스에 대한 현재 방식대로의 외화지불을 존속시키고는 있으나 현재 러시아에 진출한 많은 外

4) *Rossiyskaya Gazeta*, 1991. 11. 19. 對外經濟活動 自由化法 全文은 뒤의 附錄 참조.

國人 合作의 硬貨小賣商店(例: 진도의 모피매장 등)등은 여타 루블거래 수입상점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게됨에 따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 問題點

(1) 綜合프로그램의 缺如

러시아의 經濟改革에 대해 綜合적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에서 價格自由化 등 충격요법을 기타 정책과의 조화나 충격완화장치의 정비등 보완조치없이 성급히 실행한다는 비판이 많다.

(2) 餘他 共和國間의 協助 缺如

7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舊蘇聯邦內 각 공화국간의 분업체제에 대한 고려없이 러시아만의 獨自的 路線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러시아뿐만 아니라 舊聯邦 全體의 經濟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각 공화국이 獨自通貨를 발행하는 등 루블通貨圈內의 통화정책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러시아만의 獨自路線은 실패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3) 構造調整政策의 缺如

價格自由化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生産 및 供給增大를 위한 民營化나 土地私有化, 獨占 解體, 民需化 등 제반 所有 및 産業構造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IV.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經濟展望

1. 獨立國家聯合의 性格

1991년 12월 8일 민스크에서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등 3개 슬라브공화국에 의해 전격 발표된 獨立國家聯合 宣言은 동년 12월 21일 알마아타에서 그루지야를 제외한 舊蘇聯 11개 공화국이 모두 참여함으로써 蘇聯邦을 대신하는 새로운 國家間 組織體系로서 정식 출범하였다.

현재까지 同聯合의 구체적 성격에 대해 회원국간에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고르바초프가 추진해온 「主權國家聯邦」과의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주요 성격을 규명해 볼 수 있다.⁵⁾

(1) 聯邦政府 不在

獨立國家聯合은 어떤 형태로든 聯邦政府나 中央政府를 두지 않음으로써 會員國은 원칙적으로 완전독립국으로 聯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최종 「主權共和國聯邦」案은 聯邦最高會議나 聯邦政府 등의 舊蘇聯邦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였으나 실제로는 각 공화국이 主權國家로서 모든 實權을 장악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中央」政府에 대한 피해의식이 강한 共和國들은 聯邦體制를 유지할 물질적·조직적 힘이 결여된 고르바초프의 이 代案을 거부 하였다.

同 國家聯合에는 국가간 이해조정을 위한 國家元首評議會와 사회·경제문제를 다

5) 최종 「主權國家聯邦案」의 내용은 *Izvestiya*, 1991. 11. 15.이나 ソ連政策動向 1991. 12. 15 日字 참조.

를 行政首班評議會를 두기로 했지만 이들이 과거의 聯邦政府와 같은 실체의 통제력과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獨立國家聯合이 형식적으로는 主權共和國 聯邦案에 대신하는 새로운 聯邦體의 구성을 제안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舊蘇聯邦의 해체에 바탕을 둔 공화국의 완전독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우크라이나의 參與

고르바초프는 「主權共和國聯邦案」으로 정치연방을 「經濟共同體條約」으로 경제연방을 각각 유지하려 노력했었으나 정치·경제적 비중이 큰 우크라이나의 主權共和國聯邦에의 참여거부와 國民投票에 의한 독립선언으로 결국 그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반면 獨立國家聯合은 우크라이나를 참여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主權共和國聯邦案」에 대신한 새로운 공화국간 체제로 출범하였다.

獨立國家聯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등 3개 슬라브공동체로서 출발했을 당시에는 민족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사한 공화국간의 소규모연합으로서 經濟共同體를 지향한 것으로 평가되었었다. 그 이후 나머지 非슬라브공화국들의 참여는 슬라브 對 非슬라브간의 민족갈등을 야기시킬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는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참여국간의 경제격차가 심화되어 경제공동체로서 성공 가능성은 약화되었다.

(3) 軍事同盟

獨立國家聯合 결성의 주요배경의 하나는 核兵器的 단일통제와 舊聯邦軍의 단일지휘권을 목표로 한 군사동맹의 창출이다. 核兵器에 있어서는 핵보유 4개 공화국이 핵무기의 제거, 핵확산 금지 및 핵의 국제적 안전을 위한 「核安全」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核兵器가 완전히 폐기될 때까지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벨로루시, 카자흐, 우크라이나의 각 국가원수와 합의하고 기타 공화국과는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戰略核彈頭 2만 7천개를 단일 통제할 戰略核司令部를 國家元首評議會 직속으로 설치키로 하였다.

그러나 재래식 군대의 통합운영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의 3국이 獨自軍 창설을 강력히 주장해 나머지 8개국으로만 統合軍을 조직하여 統合軍과 獨自軍의 공존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게 되었다.

(4) 經濟同盟

國家聯合 結成의 또 하나의 중요 요인은 舊聯邦共和國간의 經濟同盟 유지이다. 1991년 12월 8일 민스크에서 발표된 經濟政策에 관한 슬라브 3개 공화국간의 정부 성명서가 향후 獨立國家聯合의 經濟同盟으로서의 진로를 규정하고 있다.⁶⁾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요원칙이 강조되고 있다.

가. 急進經濟改革

市場메카니즘의 정착, 소유관계의 전환 및 자유기업의 보장을 기초로 急進的 經濟改革을 수행한다.

나. 루블 通貨圈의 유지 및 獨自通貨 허용

기존 화폐단위인 루블을 공화국간 거래에 계속 사용하되 공화국 獨自通貨도 공화국간 特別協定에 의해 도입할 수 있다.

6) 經濟政策 정부성명서 全文은 *Izvestiya*, 1991. 12. 8일자에 실려 있으며 뒤의 附錄에 全文翻譯이 게재됨.

다. 銀行間 協定

貨幣發行의 제한 및 相互決濟體系의 형성을 위해 은행간 協定을 체결한다.

라. 共和國間 經濟政策의 調整

價格 自由化, 對外經濟活動, 關稅, 租稅 政策 등에 있어 공화국간 합의하에 일치된 정책을 수행한다.

고르바초프 주도하에 그간 야블린스키 팀에 의해 마련된 「經濟共同體 協定」과 비교할 때 기본 원칙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이 많으나 기타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구체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未知數이다.

(5) 具體事項의 未決定

1991년 12월 8일 獨立國家聯合結成 聲明과 함께 3개 슬라브공화국 정부의 經濟政策調整에 관한 성명이 발표된 이래 12월 21일 알마아타에서 11개 공화국은 6개의 基本條約에 합의하고 핵보유 4개 공화국은 「核安全」에 합의하였다.

또한 12월 31일 민스크에서 끝난 11개 공화국 首班會議에서는 軍事 및 經濟問題 등에 관한 9개 문서가 調印 되었다.

그러나 經濟 및 國防部門에서의 구체적 사항에서의 조속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최종합의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당기간 國防部門은 과도체제로 유지되며 경제부문에서는 러시아공화국의 獨自經濟改革을 여타 공화국이 뒤따르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2. 獨立國家聯合의 經濟展望 시나리오

(1) 短期展望

러시아 이외에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 등 소위 「4強」이 獨立國家聯合 전체 경제의 앞날을 좌우하겠지만 그중에서도 다음 <表 12>와 <表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공화국의 대외 의존도(공화국간 거래 포함)가 가장 낮고 더우기 搬入搬出에 있어 他共和國 依存도가 특히 낮아 獨立國家聯合의 經濟政策 수립에 있어 러시아공화국의 입김이 드세질 전망이다.

1992년부터 대부분의 共和國에서 價格自由化가 실시되고 共和國間 거래에는 당분

<表 12> 聯邦構成共和國間 製品的 搬入·搬出 現況(1988년)

단위 : 國內實去來價格, 10억루블

區 分	搬 入			搬 出		
	全體	自國製品 의 共和國 間 去來	輸入	全體	自國製品 의 共和國 間 去來	輸出
러시아공화국	135.86	68.96	66.90	102.54	69.23	33.31
우크라이나공화국	49.86	36.43	13.43	46.94	40.06	6.88
백러시아공화국	17.84	14.17	3.67	19.92	18.22	1.70
우즈베크공화국	12.32	10.62	1.70	10.49	8.96	1.53
카자흐공화국	16.40	13.70	2.70	9.10	8.30	0.80
그루지야공화국	6.49	5.22	1.27	5.90	5.50	0.40
아제르바이잔공화국	5.70	4.30	1.40	6.80	6.40	0.40
리투아니아공화국	7.49	6.24	1.25	5.96	5.43	0.53
몰다비아공화국	6.10	5.00	1.10	5.06	4.80	0.26
라트비아공화국	5.60	4.60	1.00	4.90	4.50	0.40
키르기즈공화국	3.77	3.00	0.77	2.56	2.50	0.06
타직공화국	3.49	3.02	0.47	2.33	2.00	0.33
아르메니아공화국	4.88	4.02	0.86	3.76	3.68	0.08
투르크멘공화국	2.90	2.50	0.40	2.60	2.40	0.20
에스토니아공화국	3.70	3.00	0.70	3.00	2.70	0.30

資料 : Goskomstat SSSR (1990)

〈表 13〉 聯邦構成共和國의 總生産 및 消費에 대한 製品 搬出入 比重(1988년)

단위 : %

	共和國의 總生産중 搬出된 製品(輸出 포함)의 比重	共和國의 總消費중 搬入된 製品(輸入 포함)의 比重
러시아공화국	12	15
우크라이나공화국	16	17
백러시아공화국	27	25
우즈베크공화국	20	22
카자흐공화국	12	19
그루지야공화국	26	28
아제르바이잔공화국	26	22
리투아니아공화국	22	27
몰다비아공화국	25	28
라트비아공화국	24	27
키르기즈공화국	19	26
타직공화국	20	27
아르메니아공화국	26	31
투르크멘 공화국	22	24
에스토니아공화국	24	29

資料 : Goskomstat SSSR (1990)

간 국제가격을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러시아공화국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보게 되며 이것이 러시아공화국이 獨自改革을 서둘러 추진하게된 기본배경이다.

따라서 獨立國家聯속의 단기경제전망은 러시아공화국에서 금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가격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經濟改革의 성공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⁷⁾

시나리오 1. (樂觀的)

價格自由化에 따라 농부들이 쌓아놓은 農産物을 유출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상점

7) *kommersant*, 1991. 9. 30. 참조

에 商品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換率自由化에 따라 수입이 급증한다. 私有化의 진전에 의해 경쟁이 촉진되어 물가안정이 중지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外國投資가 증대된다. 여타 공화국도 뒤를 따른다.

한편 공화국간 交易에 있어 國際價格으로 전환하게 되면 러시아가 전체교역량의 13%에 달한 收支黑字를 기록하는 유일 공화국이 될 것이다.⁸⁾ 우크라이나와 카자흐 공화국은 赤字規模를 줄일 수 있으나 여타 共和國은 대폭 赤字規模가 확대된다. 코카사스 공화국은 11.8%의 國際收支赤字를 보이고 중앙아시아지역은 21.5%까지 赤字가 확대될 것이다. 전체 발트3국의 赤字는 거의 3배로 되어 21.3%, 몰도바는 3.6배로 되어 35.6%가 된다. 러시아로부터의 原資材에 의존하는 여타 공화국의 企業들은 파산에 직면하거나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발트공화국 勞動力의 40%가 失業者가 될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여타 공화국은 모든 루블을 매각하여 루블가치를 떨어뜨리려 할 것이다. 이 결과 國際價格으로 전환후 수개월내에 러시아의 루블 구매력은 반이 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共和國 通貨中 가장 강한 러시아루블은 곧 그 위치를 회복할 것이다.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의 通貨도 이들 공화국이 農産物과 食糧의 러시아와의 交易에 있어 黑字를 보이기 때문에 곧 가치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으로부터 벨로루시와 우크라이나 및 카자흐 등은 外換 및 金, 다이아몬드 보유하고 확보 및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企業생산을 감소시키는 등의 조치로 독자통화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발트공화국의 경우 舊蘇聯 共和國 및 西方國家들과 의 交易과 金融關係에서 MFN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國際價格으로 전환에 상대적으로 쉽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공화국은 經濟制裁를 하기 어려운 현재의 정치상황이 변하기 전에 여타 공화국들보다 먼저 러시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루블

8) 다음 <表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8년 기준으로 國際價格으로 전환할 경우 러시아만 유일하게 308억루블의 收支黑字를 기록하게 된다.

을 덤핑하려 하고 있다. 이 경우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은 독자통화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낙관적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데는 西方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表 14〉

聯邦構成共和國間 製品의 搬出入 相互關係(1988年)

단위 : 國內實去來價格, 10억루블

	移越金<搬入보다 搬出이 超過한 경우는(+), 搬出보다 搬入이 超過한 경우는 (-)>	全體 移越金中	
		自國製品의 共和國間 去來	對外經濟去來
러시아공화국	-33.32	+0.27	-33.59
우크라이나공화국	-2.92	+3.63	-6.55
백러시아공화국	+2.08	+4.05	-1.97
우즈베크공화국	-1.83	-1.66	-0.17
카자흐공화국	-7.30	-5.40	-1.90
그루지야공화국	-0.59	+0.28	-0.87
아제르바이잔공화국	+1.10	+2.10	-1.00
리투아니아공화국	-1.53	-0.81	-0.72
몰다비아공화국	-1.04	-0.20	-0.84
라트비아공화국	-0.70	+0.10	-0.80
키르기즈공화국	-1.21	-0.50	-0.71
타직공화국	-1.16	-1.02	-0.14
아르메니아공화국	-1.12	-0.34	-0.78
투르크멘공화국	-0.30	-0.10	-0.20
에스토니아공화국	-0.70	-0.30	-0.40

資料 : Goskomstat SSSR (1990)

시나리오 2. (悲觀的)

價格自由化가 사전준비 결여 및 행정상의 착오 등으로 인플레이션 야기시키고 소기한바의 農産物의 공급증대를 가져오지 못한다. 農夫들은 공급 거부를 계속하고 暗市場價格은 계속 양등한다.

私有化 措置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獨寡占企業에 의해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價格만 인상되고 공급증대효과를 내지 못한다. 換率自由化에 따라 루블의 실제가치는

〈表 15〉 聯邦構成共和國의 國內價格과 比較한 國際價格으로의 製品의 總搬出入(1988년)

단위 : 세계가격, 10억외화루블 ; 국내가격, 10억루블

	輸入을 포함한 搬入		輸出을 포함한 搬出		移越金*	
	國內價格	國際價格	國內價格	國際價格	國內價格	國際價格
러시아공화국	135.86	101.9	102.54	132.7	-33.32	30.8
우크라이나공화국	49.86	47.4	46.94	44.5	-2.92	-2.9
백러시아공화국	17.84	18.5	19.92	16.4	+2.08	-2.1
우즈베크공화국	12.32	10.5	10.49	8.0	-1.83	-2.5
카자흐공화국	16.40	15.6	9.10	9.0	-7.30	-6.6
그루지야공화국	6.49	5.3	5.90	3.4	-0.59	-1.9
아제르바이잔공화국	5.70	5.1	6.80	4.6	+1.10	-0.5
리투아니아공화국	7.49	7.8	5.96	4.1	-1.53	-3.7
몰다비아공화국	6.10	5.1	5.06	2.5	-1.04	-2.6
라트비아공화국	5.60	5.0	4.90	3.7	-0.70	-1.3
키르기즈공화국	3.77	3.2	2.56	2.1	-1.21	-1.1
타지공화국	3.49	2.8	2.33	1.7	-1.16	-1.1
아르메니아공화국	4.88	3.6	3.76	2.2	-1.12	-1.4
투르크멘공화국	2.90	2.4	2.60	2.4	-0.30	-
에스토니아공화국	3.70	3.2	3.00	1.9	-0.70	-1.3

注 : * 반입에 대한 반출초과 +, 반출에 대한 반입초과 -

資料 : Goskomstat SSSR (1990)

떨어지며 다른 공화국들의 獨自通貨 도입은 루블의 購買力을 더욱 떨어뜨린다. 이 경우 러시아 공화국도 새로운 루블貨를 도입하는 通貨改革을 단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이상 經濟改革에 기대를 걸지 않는다. 民衆蜂起가 일어나고 옐친이 사임한다. 이 경우 新政府는 舊共產黨 勢力 보다는 파시스트적인 극우세력과 군부강경파와의 聯合으로 구성될 수 있다.

공화국간 貿易障壁이 높아지고 민족주의 세력이 집권함으로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슬라브와 비슬라브, 아르메니아 對 아제르바이잔 등의 공화국간 紛爭 및 共和國內에서 소수민족의 봉기가 연발하여 舊蘇聯 全體가 극도의 混亂 및 內亂 상태로 치닫는다.

시나리오 3. (新코메콘 形成)

러시아공화국에서 시작된 經濟改革이 어느 정도 공화국내의 경제위기를 회복시켜 주기는 하나 여타 공화국 특히 回教圈 共和國에서는 經濟改革의 진전속도가 늦어 共和國間 經濟協力の 장애로 된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도 조속한 通貨의 兌換性 확보에는 실패하여 硬貨不足에 직면한다. 이 경우 각 공화국은 다음에 합의할 수 있다.

舊蘇聯의 제3국에 대한 負債清算을 위한 단일기구로서 Vneshekonombank가 유지된다. 수출입 활동에 관련된 모든 계정은 공화국 對外貿易銀行에 이전되고 域內交易에서의 去來稅의 분배문제, 연료, 전력, 면화, 철 및 비철금속 또는 곡물 등의 價格 상승은 공화국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舊코메콘처럼 공화국들은 합의된 기간내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物資를 교역하는 공화국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정부간 협정 및 기업간 직접접촉에 의한 공화국간 거래에 있어 硬貨에 대해 안정적인 換率을 가지는 새로운 TR(對替루블)이 사용될 수 있다. 이 換率은 코메콘의 IBEC(國際經濟協力銀行)과 같은 새로운 共和國間 決濟委員會에 의해 정해진다. 이 경우에도 각 공화국은 私的인 輸出로부터 國內消費市場을 보호하기 위해 독자통화를 도입할 수 있다. 個別 共和國通貨의 교차환율은 시장에서의 商品 수급관계, 通貨量 및 經濟改革의 진전 등의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2) 中長期 展望

여기서는 舊蘇聯의 장기전망을 위해 우선 향후 10년간 기간의 특징을 전망해 본 후 舊蘇聯 구성 공화국들이 가질 관계 및 내부 체제에 대한 장기전망을 바탕으로 舊蘇聯이 나아갈 몇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時期 規定

舊蘇聯의 2000년까지 향후 약 10년의 기간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시기가 될

것이다.

① 移行期

1991년 8월의 쿠데타실패이후 蘇聯 共產黨이 몰락하고 우크라이나의 독립 및 獨立國家聯合의 출범으로 蘇聯邦의 해체가 공식화되긴 하였으나 정치적으로는 共產黨一黨獨裁에서 多黨制로, 經濟的으로는 軍需産業을 중심으로한 社會主義 計劃經濟에서 民需産業을 위주로 한 資本主義 市場經濟로, 국가체제면에서는 舊聯邦體制에서 각 공화국의 자발적 참여와 市場메카니즘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공동체 형태로, 이념적으로는 共產主義에서 自由民主主義로의 이행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 측면에서 이행이 이 기간동안에 완료되지는 않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일 것이다.

② 施行 錯誤期

위와같은 각 측면, 부문에서의 이행이 진행된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동시의 그리고 일관된 이행이라기 보다는 한 부문의 이행이 다른 부문보다 빨리 진전될 수도 있고, 중간에 일시 정지 또는 후퇴 양상을 보일 수도 있는 시행착오가 충분히 예상되는 시기이다.

③ 國際化 時期

舊蘇聯이 戰前까지는 蘇聯邦을 경계로 그리고 戰後에는 COMECON을 결성하여 그 域內에서 기본적으로 계획과 청산메카니즘에 의한 自給自足 및 閉鎖經濟體制를 유지해 왔다면 이 기간중에 새로운 蘇聯은 공화국 개별적으로 또는 聯合體를 구성하여 西方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EC나 NATO등에의 직·간접으로 참여가 시도되어 政治·經濟·軍事面에서의 진정한 국제화가 진행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④ 地域化 時期

현재 갖 출범한 獨立國家聯合을 비롯하여 다른 어떠한 형태의 國家聯合이 舊蘇聯을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舊蘇聯과 같은 강력한 中央政府가 다시 등장할 수는 없을 것이며 따라서 共和國政府 더 나아가서 地域單位의 自治權이 확대되는 지역화시기가 될 것이다.

2) 體制規定

현 시점에서 舊蘇聯이 장기적으로 어떠한 體制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해 전망하기는 극히 어렵다. 대체로 다음과 같이 共和國間 聯合形態, 共和國內 經濟體制 構造 및 政治體制 등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① 國家聯合의 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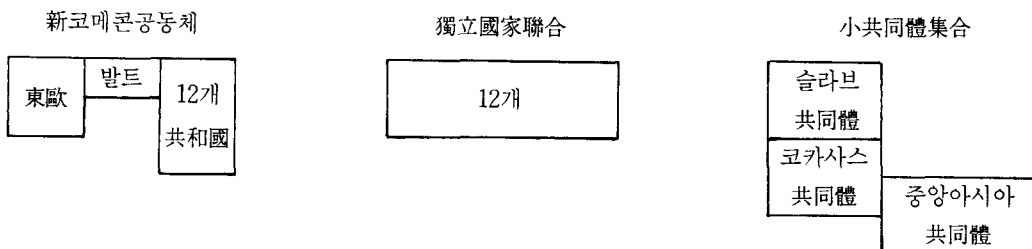
蘇聯邦이 해체되고 최근 舊蘇聯의 11개 공화국이 참여하는 獨立國家聯合이 출범하기는 하였으나 장기적으로도 이와같은 형태가 계속 유지 될런지는 극히 불확실하다.

가. 範圍

우선 참가국의 범위가 최소의 경우는 당초대로 슬라브 3개 공화국으로 축소되어 슬라브공동체 이외에 코카사스공동체 및 중앙아시아공동체 등으로 小共同體集합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 共同體가 변영할 경우 발트3개 공화국은 물론 舊코메콘에 가입했던 東歐國家들도 참여하는 新코메콘 共同體로의 발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면에 共同體가 소기한 대로의 공화국간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될 경우 각 공화국은 완전 독자노선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몰다비아는 루마니아와, 코카사스와 중앙아시아의 回教共和國들은 이란, 이라크 등 중동의 회교국과 범회교공동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

〈圖 1〉 國家聯合의 範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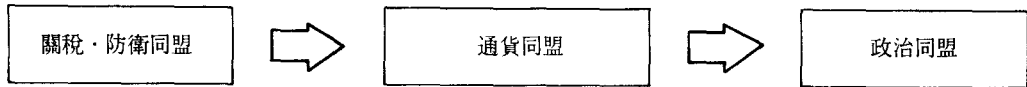


나. 性格

현행 獨立國家聯合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關稅同盟, 軍事的으로는 核의 中央統制를 위한 防衛同盟의 性格을 띠고 있으나 그 밖의 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獨立國家聯合이 유지·발전되기 위해서는 이 國家聯合이 단일 通貨圈으로 남느냐의 여부 즉 通貨同盟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냐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獨立國家聯合이 현 EC가 추구하는 바와 같이 향후 10년내에 새로운 政治同盟으로까지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圖 2〉 國家聯合의 性格



② 經濟體制 및 構造

獨立國家聯合 가입 공화국들이 모두 市場經濟로의 이행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市場經濟 이행의 정도는 각 共和國別로 매우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 시점에서의 각 共和國 조건을 감안할 때 러시아가 市場經濟 이행으로의 改革을 주도할 것이나 중앙아시아공화국이나 코카사스공화국들이 과연 얼마나 이러한 急進改革을 뒤따라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經濟構造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重工業 및 軍需産業 위주의 産業構造에서 輕工業 및 民需産業으로의 전환(Conversion)이 진행되겠지만 70여년간 舊聯邦體制下에서 굳어져온 共和國間 分업구조를 市場經濟體制下에서 새롭게 정착시키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이다.

③ 政治體制

각 공화국에서 共產黨 一黨獨裁를 대신한 民主的 多黨制로의 발전이 진행되기는 하겠지만 이의 진전 속도는 공화국별로 크게 다를 것이다. 우선 러시아공화국을 비

룩한 슬라브공화국의 민주화 속도가 가장 빠르게 진전될 것이나 舊共産黨 勢力이 계속 집권하고 있고 민족 및 종교집단이 강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하는 중앙아시아 및 코카사스공화국에서는 상당한 정도 민주화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舊蘇聯의 각 공화국들이 지향하는 목표는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市場經濟로의 성공적 이행으로 보인다. 이들 목표를 달성키 위해서는 다음 <表 16>에 요약된 바와 같이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表 16> 獨立國家聯合의 自由民主主義에 기초한 市場經濟로의 성공적 이행조건

區 分		時 急 課 題	中 長 期 課 題
對 內	經 濟	· 신속한 經濟改革의 실시 및 공화국간 經濟協力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協力	· 軍需産業의 民需轉換 (Conversion) · 資本主義·市場經濟의 法的·制度的 장치 완료
	政 治 社 會	· 核 및 防衛協力體制 구축 · 정치인들의 타협	· 민족분쟁의 해결 · 民主主義의 제도화
	意識構造	· 國民의 인내심 요구 · 民族主義 감정 자제	· 企業家 정신 함양 · 새로운 노동의식 제고
對 外	· 西方의 적극적 지원		· 國際機構 가입 (IMF, IBRD, EBRD 등)

3) 시나리오

舊蘇聯體制의 장기전망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 요인의 충족여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시나리오 1. (政治·經濟 成功)

향후 1-2년내 價格自由化와 私有化, 民需化 등 러시아공화국을 선두로 한 經濟改革이 서방의 경제지원에 힘입어 순조롭게 진행되고 동시에 민족문제나 정치적 갈등이 민주적으로 해결되어 향후 10년후 舊蘇聯體制는 발트3국 및 東歐國家를 포함하

는 새로운 코메콘 공동체로 확대발전된다. 共同體의 성격도 單一通貨圈을 유지하는 通貨同盟이거나 적어도 주요 金融·通貨政策에 협조하는 수준이며 새로운 政治同盟으로의 발전도 모색된다.

각 공화국의 經濟體制도 상당한 정도로의 市場 및 자본주의적 요소가 이식·발전되는 단계이다. 또한 經濟構造도 輕工業 및 民需部門의 비중이 重工業 및 軍需産業 比重을 앞서는 구조조정에 성공한다.

끝으로 정치체제도 대부분의 공화국들에 多黨制를 바탕으로 한 民主主義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시나리오 2.(經濟만 成功)

향후 1-2년내의 經濟改革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기는 하나 각 공화국의 민족문제, 정치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공화국간 協力이 완전히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 舊蘇聯邦 공화국 12개국에 獨立國家聯合에 남기는 하나 關稅 및 防衛同盟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 것이며 각 共和國은 독자통화를 사용하기는 하나 주요 經濟政策의 상호 협력은 지속된다.

각 共和國에서 경제실적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市場經濟體制는 완전히 뿌리박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계속하며 舊蘇聯에서 물려받은 산업구조의 조정에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政治體制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공화국에서 민족문제등의 미해결로 민주주의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시나리오 3. (슬라브공화국만 成功)

향후 1-2년내의 經濟改革이 러시아를 비롯한 슬라브 3개 공화국에서는 성공하나 대부분의 다른 共和國에서는 실패한다. 그러나 다른 공화국에서도 西方으로부터의

經濟支援은 계속되어 어느 정도의 경제회복에는 성공하고 민족주의 및 지역주의가 팽배하게되어 소규모 공동체가 결성된다. 코카사스 공동체는 그들 사이의 민족분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며 중앙아시아 공화국과 非슬라브 공동체를 구성하기도 한다. 중앙아시아의 회교공동체는 슬라브공동체와의 垂直分業體制를 도모하거나 이웃 中東回教國과의 범회교공동체를 구성한다.

經濟體制 및 經濟構造의 조정도 슬라브3국에서만 성공하게 되고 政治體制에 있어서도 여타 공화국은 과거 체제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다.

政治·經濟가 모두 실패하고 각 공화국들이 완전 독자노선으로 나아가며 공화국 간 갈등 및 각 공화국의 내부분열 등의 세포분열이 확대되어 완전한 내란상황이 도래하는 最惡의 시나리오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시점에서 보다 실현성 있는 것은 시나리오 2와 3이며 앞의 시나리오 3개에서 상정한 상황이 2000년까지는 혼합되거나 또는 단계별로 전개되어 나타날 수 있다.

3. 經濟豫測

蘇聯邦의 해체에 따라 獨立國家聯合이 출범하기는 하였으나 발트 3개 공화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獨立國家聯合 소속 공화국들도 향후 독자적 對外經濟交流를 확대시킬 전망이어서 舊蘇聯 전체의 장기경제전망을 수량적으로 구체화 시키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여기서는 蘇聯의 공식통계와 PlanEcon, WEFA 등의 西方推定을 동시에 비교하여 1995년까지의 주요경제지표의 예측치를 다음 表로 요약하여 보았다.

1991년 GNP 실적에 있어서는 세 통계 모두 -7~-15%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비공식추정으로는 20%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92년 GNP 예측치에 있어서는 蘇聯 공식통계에서는 -5.3, PlanEcon은 -8.0, WEFA는 -4.1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對外貿易去來에서는 蘇聯 公式統計에서는 -21.0으로 대외무역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본 반면 PlanEcon은 10.0% 성장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 대조적이다.

西方推定에 따르면 1993년까지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나 1994년부터는 PlanEcon은 빠른 회복세를 WEFA는 점진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교적 낙관적 전망시나리오에 따르더라도 舊蘇聯 經濟가 89년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表 17〉

舊蘇聯經濟의 成長展望¹⁾

단위 : 成長率, %

	1991	1992	1993	1994	1995
國民總生産					
— 蘇聯公式統計	-12.0	-5.3			
— PlanEcon	-14.9	-8.0	-1.2	2.0	6.8
— WEFA ²⁾	-7.1	-4.1	-2.7	0.2	0.8
生産國民所得					
— 蘇聯公式統計	-14.7	-7.3			
— PlanEcon	-13.1	-6.5	-1.9	.9	3.8
— WEFA	-9.4	-5.0	-1.7	-0.5	0.2
國民所得					
— 蘇聯公式統計	-14.8	-6.4			
— PlanEcon	-15.4	-6.6	-2.0	0.0	3.9
工業總生産					
— 蘇聯公式統計	-9.0	-3.2			
— PlanEcon	-9.0	-6.0	-1.0	2.0	6.0
— WEFA	-9.9	-6.9	-3.2	-1.0	0.1
農業總生産					
— 蘇聯公式統計	-7.0	-1.2			
— PlanEcon	-12.6	-4.4	-0.0	2.4	3.4
— WEFA	-3.0	1.5	2.1	1.3	2.2
對外貿易去來					
— 蘇聯公式統計	-28.0	-21.0			
— PlanEcon	-47.4	10.0	20.3	22.5	18.9
— WEFA	-11.3	-0.2	4.5	8.2	7.6

註 : 1) 蘇聯 및 西方의 展望值임. 2) GDP 基準임.

資料 : Goskomstat SSSR 1991.

PlanEcon, *Review and Outlook*, November 1991.

WEFA, *World Economic Outlook*, July 1991.

모든 資料는 발트공화국을 포함한 舊蘇聯 15개 공화국 전부를 포괄한 것임.



V. 韓·蘇 經濟協力關係의 新戰略 및 推進方向

1. 韓·蘇 經協의 評價

1990년 9월의 韓·蘇 修交와 뒤이은 對蘇經協資金 제공은 그간 6공화국 출범이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온 北方政策의 최대 성과의 하나로서 평가될 수 있다. 韓·蘇 經協을 축으로 한 北方政策은 그간 西方一邊倒의 우리나라의 外交政策을 소위 全方位 外交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으로써 그간 외교적 숙원이었던 南北韓 UN동시가 입등을 달성케 하는 결정적 배경이 되었다. 이러한 政治·外交的 성과는 南北韓 問題에 있어서도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작년 12월의 南北合意書 발표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韓·蘇 經協이 韓·蘇 條文 등 北方政策의 政治·外交的 성과를 경제적으로 사기위한 수단이자 비용이라는 視覺도 있으나 韓·蘇 經協은 다음과 같이 순수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의도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國際市場에서의 先進國 및 後進國 양측으로부터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한 우리로서는 蘇聯 市場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市場이라 할 수 있으며 西方 國家들이 蘇聯將來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진출을 꺼리고 있는 이때가 우리가 진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한 것이었다.

우리에게 蘇聯은 단지 商品 및 交易市場으로서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資源 및 基礎·尖端技術 등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경합보다는 補完關係가 있음으로써 양국간의 경제관계의 발전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도 소련 진출의 경제적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韓蘇經協은 이미 60~70년대부터 蘇聯市場에 진출하여 착실히 기반을 닦아 놓은 여타 西方國家들의 진입장벽을 깨고 蘇聯市場에 진출하기 위해 후발 주자로서 물어야 할 進入費用(Entry Cost)이었다. 蘇聯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韓國으로부터 經協資金이 제공된 것은 양국간의 友好·信賴 關係를 급속히 진전 시킴으로써 蘇聯의 政治的 변혁 양상과 관계없이 향후 장기적 양국관계의 발전에 기여한 면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韓蘇經協을 축으로 한 양국관계의 급진전은 東北亞經濟協力을 둘러싼 對北韓, 對日本 關係에 있어 우리의 위상을 높여 주는 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韓蘇經協이 지금까지 위와 같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몇가지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우선 韓蘇修交 교섭의 초기단계에서는 정책결정과정의 기밀 유지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이후 韓蘇經協의 기본방향이나 經協資金協商 등에 있어 전문가나 관계실무자들의 의견 수렴과정이 불충분함으로써 政策決定過程이 일반이 기대한 만큼 치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韓蘇關係의 전개가 새로운 과제였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내에 專門家를 제대로 양성치 못했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對蘇進出에 있어 정부와 기업간에, 그리고 業界內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필요한 과당경쟁이 초래된 면도 없지 않다.

끝으로 최근의 聯邦解體에 처한 政府對策에서 나타났듯이 국내의 對蘇關係의 인맥형성이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한 聯邦 人士爲主로 되어 있어 蘇聯內 사정의 급변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2. 對獨立國家聯合 및 對러시아 經協戰略

현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對蘇經濟關係를 정리하고 새로운 蘇聯體制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對蘇經協戰略을 신중하게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蘇聯邦의 해체를 마치 對蘇經協資金의 회수불능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비록 蘇聯邦이 완전 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러시아공화국은 聯邦의

합법적 승계자가 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 바 있으며 향후 經濟改革의 관건인 서방으로부터의 추가 경제지원의 확보를 위해서 여타 공화국들도 기존의 外債問題 해결을 도외시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聯邦解體가 우리의 對蘇進出에 있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 經協資金 상환을 위한 개별공화국의 보증확보라는 과제 이외에 장기적으로는 공화국 단위의 새로운 인맥구축 및 연구, 조사정보망의 확충이라는 과제가 제시된다. 한편 聯邦의 해체는 그간 보수적이고 비효율적이었던 독점적 聯邦官僚組織의 해체에 따라 개별공화국 및 기업과의 직접접촉 확대가 가능해지는 등 對蘇市場 進出 확대의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기도 하다.

새로 출범한 獨立國家聯合과의 經濟協力關係는 지금까지의 對蘇經協과는 다른 새로운 전략을 필요로 한다. 단기적으로는 독립국가연합구성국 중 정치·경제적으로 비중이 큰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및 카자흐 등 소위 「4強」, 그 중에서도 특히 外交·軍事面에서도 비중이 큰 러시아와의 관계 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經協部門別로 볼때 우선 交易과 直接投資에 있어서 蘇聯全體 國民所得의 86%를 차지하여 경제적 비중이 큰 위의 「4強」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資源開發部門에 있어서는 천연자원 부존도가 높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 등에, 科學技術部門에는 연방과학아카데미를 그대로 흡수할 러시아에, 民需轉換部門에 있어서는 軍需産業이 집중되어 있는 러시아와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등에 각각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附錄 6 참조).

한편 수송·통신분야에 있어서는 독립국가연합 전체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東歐나 北歐로의 진출발판 구축을 위해서는 발트공화국 및 벨로루시와의 협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TSR을 현대화하고 이를 한반도와 日本에까지 연장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수송인프라체계 구축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僑民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카자흐, 우즈베크공화국도 우리 기업의 진출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의 對舊蘇聯 經協戰略은 독립국가연합의 유지여하 보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력관계를 유지하느냐 여부 및 카자흐 공화국이 슬라브공화국으로 편입될 것이냐 등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經協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는 러시아내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세대 교체 현상에 발 맞추어 새로운 지도세력과의 인맥구축을 정부나 기업 모두 서둘러야 할 것이다. 특히 經濟分野에 있어서는 새로 부상하는 30~40대의 改革派 經濟官僚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는 新興 資産家 계층과의 유대 및 協力強化에도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附錄 7 참조).

장기적으로 러시아내에서도 지방당국의 自治權이 더욱 강화되고 東北亞經濟協力圈도 구체화 될 전망이므로 사할린,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지역에 대한 진출 확대가 바람직할 것이다.

〈附 錄〉

1. 러시아聯邦內에서의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布告(91. 11.15)
2. 러시아聯邦 政府改編에 관한 布告(91. 11. 6)
3. 經濟改革下에서의 러시아聯邦의 政府業務組織에 관한 布告(91.11.6)
4. 러시아聯邦 經濟改革의 財政的 保障과 財政體系의 保護에 관한 決議 (91. 11.15)
5. 經濟政策의 조정에 관한 백러시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공화국 政府 聲明
(91. 12. 9)
6. 舊蘇聯 共和國의 交易·投資環境 評價
7. 러시아聯邦內 新興 改革派 經濟官僚의 名單 및 엠티 側近의 權力構造



러시아聯邦內에서의 對外經濟活動 自由化에 관한 布告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Советской Федеративн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Либерализации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ях РСФСР

對外經濟活動의 促進, 國內市場의 安定化 및 外國投資의 誘致를 목적으로 다음을 決定한다.

1. 所有形態에 관계없이 러시아聯邦內에 登錄된 모든 企業 및 企業聯合들은 특별한 등록없이도 仲介活動을 포함한 對外經濟活動의 수행이 許容된다.
外換去來는 러시아聯邦 政府에 의해 정해진 절차로 발급된 許可에 기초하여 수행한다.
2. 러시아聯邦 政府는 다음을 시행한다.
 - 러시아聯邦 법률에 기초하지 않은 對外貿易에서의 바터거래에 대한 制限을 1 개월 기한이내에 폐지한다.
 - 輸出入 許可 및 割當(Quota) 대상품목이 과거보다 축소된 새로운 商品目錄을 1個月 기한내에 승인을 위해 제출한다.
 - 1992년 러시아聯邦內에서 輸出入 商品(노동, 서비스)의 割當 및 許可를 競爭 혹은 競賣로 전환하는 許可와 割當 體系에 관한 새 규정을 1992년 1월 1일까지 승인한다.
 - 바터거래를 포함한 수출입거래의 課稅 절차와 課稅 및 關稅率의 규모를 위한 提案을 1992년 1월 1일까지 제출한다.
3. 러시아聯邦內에서 外換去來를 수행할 수 있는 全權이 부여된 銀行으로 하여금 모든 法人 및 市民들에게 外貨計座를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市民들의 計座에 있는 外貨는 어떠한 制限이나 및 許可없이 그들의 요청에 따

라 지급한다.

4. 러시아聯邦의 外貨準備金을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聯邦內에 所在 혹은 登錄된 모든 기업의 外貨收入의 일부에 대한 의무적인 賣却을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러시아聯邦 中央銀行에 대한 企業收入의 一部에 대한 義務的 賣却 基準(normativ)은 러시아聯邦 政府가 정한다.

러시아聯邦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賣却해야 하는 기업의 일부 外貨收入의 루블화와의 교환에 사용하는 루블換率을 독자적으로 정하도록 권고한다. 러시아聯邦의 外貨準備金으로 積立된 資金은 러시아聯邦 政府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여 對外債務의 償還, 輸入 및 기타 목적의 지출을 위한 중앙의 명령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러시아聯邦 政府는 1992년 輸入 補助金의 축소 방안을 1개월기한 이내에 준비한다.

5. 現金外貨購入에 대한 制限을 포함하여 러시아聯邦內에 등록된 모든 法人 및 市民들의 全權銀行을 통해 수행되는 外貨去來의 참가에 대한 制限은 폐지된다. 러시아聯邦內에 등록된 法人에 대한 外貨販賣는 단지 상품 및 서비스의 輸入(經常去來로 遂行)과 外國人 投資者의 利潤 및 配當金의 外國으로의 送金 목적에 대해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한다.

外貨에 대한 루블 換率은 商業銀行과 기타 法人 및 市民들이 外貨를 賣買하는 競賣所, 去來所, 金融市場에서의 需要·供給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러시아聯邦 中央銀行으로 하여금 營業所(kommercheskii punkt) 및 그밖에 換錢所(obmennyi punkt)에서의 外貨賣買 換率의 上限을 고시하고 또한 시민들의 外貨購入 및 搬出의 限度를 정하도록 권고한다.

6. 蘇聯大統領 및 聯邦機關에 의해 정해진 러시아聯邦內에서의 모든 형태의 의무

적인 外貨控除와 製品(노동, 서비스)의 輸出入稅는 폐지된다.

蘇聯國家銀行(Gosbank)에 의해 정해진 外貨에 대한 루블 換率은 러시아聯邦內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7. 러시아聯邦 中央銀行으로 하여금 銀行間市場 및 外換市場의 발전과 換錢所의 支店網의 확대를 위한 措置를 승인하도록 한다.

8. 治外法權의 地位를 가진 지역에 소재한 商店에서의 決濟 및 勞動에 대한 支拂을 제외하고 러시아聯邦內에서의 法人間, 또는 法人 및 市民間의 모든 外貨의 決濟와 支拂은 禁止된다.

러시아聯邦內에서 시민들의 小賣商業과 서비스에 대한 현재의 방식대로의 外貨 支拂은 1992년 7월 1일까지 存續된다.

9. 러시아聯邦內에 登錄한 法人 및 市民들은 러시아聯邦 정부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의거한 許可에 따라 有價證券의 購買를 포함한 外國에서의 投資 수행이 허용된다.

10. 러시아聯邦 法務部으로 하여금 現 布告의 이행과 관련하여 러시아聯邦 정부의 규정 變更에 관한 提案을 제출하도록 지시한다.

11. 現 布告는 1992년 1월 1일부터 效力을 발생하는 第 5 條, 第 6 條 및 第 8 條의 第 1項을 제외하고 그의 署名 순간 效力을 발생한다.

Rossiyskaya Gazeta

1991年 11月 19日

러시아 聯邦 大統領 보리스 옐친

모스크바, 크레믈린, 1991. 11. 15

러시아聯邦 政府改編에 관한 布告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Советской Федеративн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СФСР

러시아聯邦 憲法 第 121-1條 및 第 121-5條 第 6項과 「急進的 經濟改革 기간의 權力 執行機關에 관한」 1991년 11월 1일자 러시아聯邦 人民代表者會議 第 5次大會 決議 第 2項에 의거하여 다음을 決定한다.

1. 經濟改革의 기간동안 러시아聯邦 政府는 러시아聯邦 大統領이 領導한다.
2. 러시아聯邦 副統領과 러시아聯邦 國務長官(Gosudarstvennyi Sekretary)은 러시아聯邦 政府의 改編에 관한 提案을 3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러시아聯邦 정부의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기전까지 러시아聯邦 閣僚會議는 러시아聯邦 정부의 職務를 代理한다.

Pravitel'stvennyi Vestnik
1991年 11月 第 47號(125)

러시아聯邦 大統領 보리스 옐친
모스크바, 크레믈린, 1991. 11. 6

經濟改革下의 러시아聯邦 政府 業務組織에 관한 布告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Советской Федеративной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СФСР в Условиях экономической Реформы

急進的인 經濟改革의 條件下에서 國民經濟의 効果적인 管理와 러시아聯邦 政府(閣僚會議)의 業務를 保障하기 위한 目的으로 다음을 決定한다.

1. 急進的인 經濟改革의 遂行 時期에 러시아聯邦 大統領의 直接的인 指揮아래 다음과 같이 러시아聯邦 政府를 구성한다.

—러시아聯邦 제 1副總理

—러시아聯邦 副總理

—러시아聯邦構成共和國들의 大統領(閣僚會議 議長)

—러시아聯邦 閣僚

現 布告의 附則 제 1호에 의거하여 러시아聯邦 政府構造를 승인한다.

2. 러시아聯邦 政府는 經濟, 社會·文化的 건설 및 國家管理의 최우선적인 문제에 대한 決議 및 命令을 자신의 會議에서 채택하도록 정한다.

러시아聯邦 政府會議(Zasedanie Pravitel'stva)는 다음의 活動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러시아聯邦 國家豫算案의 準備問題, 러시아聯邦의 現 國家豫算의 執行問題와 國家豫算外基金의 形成 및 使用問題의 審議

—蘇聯機關 活動의 러시아聯邦 法律에의 저촉문제, 러시아聯邦 및 러시아 聯邦 構成共和國들의 利益과 관련한 문제의 審議

—러시아聯邦 및 러시아聯邦內의 개별지역의 經濟 및 社會發展 計劃案의 審議

—國家有價證券의 發行總額 및 國家 國內外債務의 증가 限度의 決定

—고정 國家價格이 적용되는 製品, 商品 및 서비스 目錄의 결정

—특정 형태의 商品 및 서비스, 특정 범위의 活動 혹은 특정 범주의 시민들의

活動으로부터의 生産에 대한 關稅支拂 및 租稅率의 결정과 변경에 따른 제안의 審議

-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私有化로부터 얻은 資金이용의 기본방향에 대한 제안 및 國家所有 資産의 연간 私有化 프로그램의 審査
- 러시아聯邦 部處 및 部署의 구성 및 조직에 관한 제안의 준비 및 러시아聯邦 大統領에 대한 제출에 관한 決議의 承認
- 러시아聯邦 政府의 業務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서명된 政府間 협정에 관한 결정의 승인

러시아聯邦 政府會議는 러시아聯邦 대통령의 주재하에 개최된다. 러시아聯邦 대통령의 부재시 同 會議는 러시아聯邦 제 1副總理에 의해 주재된다. 副統領은 러시아聯邦 政府會議에 諮問權을 갖는다.

러시아聯邦 政府會議는 全閣僚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경우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모든 결정은 會議에 참석한 러시아聯邦 정부 성원의 多數決에 의해 채택한다. 可否同數일 경우 議長이 표결한 결정이 채택된 것으로 간주한다.

러시아聯邦 정부의 決議는 러시아聯邦 大統領이 署名하고 그의 不在時 또는 대통령의 위임에 따라 제 1副總理가 署名한다. 러시아聯邦 政府의 命令(postonovlenie; decree)은 러시아聯邦 大統領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제 1副總理 및 서열에 따라 副總理 순으로 署名한다. 러시아聯邦 대통령은 러시아聯邦 政府의 決議 및 命令을 변경할 수 있다.

러시아聯邦 政府會議의 조직 및 業務, 決定의 승인 절차에 관한 문제는 러시아聯邦 大統領의 布告와 命令에 기초하여 규제된다.

러시아聯邦 國家諮問委員(Sovetnik)들은 러시아聯邦 政府會議에 審議權을 갖고 참석할 권리가 있다.

3. 러시아聯邦 政府 決議案의 準備 및 예비 審議를 위한 검토안의 작성과 또한 國家管理에 있어서의 緊急問題의 효율적 결정을 위해 러시아聯邦 大統領의 감독

을 받는 러시아聯邦 政府協議會(Kollegiya Pravitelystva)를 만든다.

協議會의 成員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聯邦 政府의 제 1副總理, 副總理, 外務部長官, 內務部長官, 出版·公報部長官, 國家保安委員會議長. 러시아聯邦 副統領은 러시아聯邦 政府協議會에 참여할 수 있다.

러시아聯邦 大統領은 러시아聯邦 政府協議會의 成員을 교체할 수 있다.

러시아聯邦 政府協議會에 러시아聯邦 中央銀行總裁 및 러시아聯邦 국가자문위원들은 정책의 합법성을 諮問하기 위해 참석할 권리가 있다.

러시아聯邦 政府協議會 會議는 協議會 成員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하에 議長인 러시아聯邦 大統領(그의 부재시 러시아聯邦 政府 제 1부총리가 議長)이 主宰한다. 協議會의 會議中에 이루어진 결정은 協議會 會議錄에 기록된다. 이들 決定은 러시아聯邦 政府의 決定 또는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大統領 布告令의 형식을 취할 수 있다.

4. 러시아聯邦 大統領은 러시아聯邦 정부를 지휘하고, 政府會議를 주재하며 러시아聯邦 政府의 결정에 署名한다.

러시아聯邦 大統領은 러시아聯邦 國防部, 國家保安委員會 및 內務部를 改編한다.

러시아聯邦 대통령은 러시아聯邦 정부 제 1부총리에게 특정한 자신의 權限 수행을 委任할 수 있다.

5. 러시아聯邦 政府 제 1副總理는 러시아聯邦 政府, 副總理 및 政府部處들의 業務를 조직한다.

러시아聯邦 政府 제 1副總理는 러시아聯邦 정부가 채택한 결정의 執行結果에 대해 러시아聯邦 大統領에게 책임을 진다.

러시아聯邦 政府 제 1副總理는 러시아聯邦 大統領 및 러시아聯邦 政府의 權限

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제외한 러시아聯邦 정부 및 下位 國家管理機關의 조직 활동에 따른 任務遂行을 위한 命令을 公布한다.

6. 러시아聯邦 제 1副總理의 委任에 따라 副總理는 다음을 수행한다.

- 독립적으로 그의 權限을 수행한다.
- 러시아聯邦 部處 管轄機關의 활동을 調整한다.
- 자신의 권한내에서 任務遂行을 위한 命令을 公表한다.
- 蘇聯邦構成共和國 政府 및 러시아構成共和國 閣僚會議와 相互關係된 업무를 수행한다.

7. 러시아聯邦 政府의 成員들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 러시아聯邦 政府의 權限에 속해 있는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해 러시아聯邦 政府에 제안을 제출하며, 러시아聯邦 政府의 결정을 立案할 권한을 가진다.
- 그에게 위임된 활동의 범위내에서 개인적인 責任을 진다.
- 國家 및 社會機關, 企業, 施設 및 組織들의 기타 職務를 管掌하거나, 企業活動에 종사할 권한이 없다.

러시아聯邦 閣僚들은 러시아聯邦 政府會議에서 특별히 審議된 문제를 제외하고 그에게 委任된 國家管理의 문제와 또한 러시아聯邦의 기타 部處와의 정해진 절차에 의한 합의가 요구되는 문제의 결정을 독자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러시아聯邦 政府 閣僚들은 자신의 權限內에서 독자적으로 蘇聯 部處와의 상호 관계와 또한 蘇聯邦構成共和國 部處들과의 相互關係를 맺을 수 있다.

8. 러시아聯邦 政府 副統領은 러시아聯邦 大統領의 統治構造內에서 러시아聯邦 政府를 공동 관리하며, 러시아聯邦 大統領으로부터 위임받은 權限의 범위내에서 기타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러시아聯邦 副統領은 經濟改革의 遂行 기간중 同 改革의 효율적인 統制를 목적

으로 현 布告의 附則 第2號에 합의된 管理機關의 지도적인 職務를 맡는 成員으로서 中央의 효율적인 통제를 수행한다. 中央機關의 權限, 構造 및 活動 節次는 러시아聯邦 大統領이 정한다. 중앙기관은 러시아聯邦 副統領이 領導한다. 改革期間中 효율적인 통제를 위한 중앙기관의 결정은 권고의 성격을 가지며 러시아 聯邦 政府 및 部處들은 이를 지체없이 審議하여야 한다.

9. 러시아聯邦 大統領은 祕書室(Upravlenie delamy Administratsiya)의 부문별 部局 및 閣僚會議 議長 및 副議長 소속 행정·사무요원들을 기초로 러시아聯邦 政府 總務處(Apparat)를 구성한다. 러시아聯邦 大統領 祕書室(Administratsiya)이 부문별 정부부처의 行政·事務업무를 담당하고 閣僚會議 議長 및 副議長은 별도의 行政·事務要員(apparat)을 가진다. 러시아연방정부의 總務處는 대통령 비서실의 독자적 下部構造로 된다. 러시아聯邦 政府총무처는 러시아聯邦 政府 제 1副總理가 지휘한다. 그는 러시아聯邦 政府 총무처의 구조 및 定員 등을 승인한다. 러시아聯邦 政府 총무처의 支出豫算은 러시아聯邦 제 1副總理의 제출에 따라 러시아聯邦 大統領이 승인한다.
10. 현 布告에 의거하여 러시아聯邦 政府 및 機關의 成員이 구성될 때까지, 개편중인 러시아聯邦 政府 및 大統領 祕書室의 하부구조 및 러시아聯邦 內閣, 部處, 國家委員會 등의 책임자, 근무자 및 전문가들은 현재의 직무상의 의무를 계속 수행한다.
11. 러시아聯邦 大統領 布告 1991년 7월 19일자 제 12호, 1991년 8월 14일자 제 46호, 1991년 8월 14일자 제 47호, 1991년 8월 16일자 제 56호, 1991년 8월 16일자 제 58호, 1991년 8월 26일자 제 88호, 1991년 9월 10일자 제 112호, 1991년 9월 11일자 제 114호, 1991년 9월 13일자 제 118호, 1991년 9월 30일자 제 137호 및 1991년 10월 22일자 제 150호는 효력이 상실하였음을 확인한다.

12. 현 布告는 署名 순간부터 施行된다.

Pravitel'stvennyi Vestnik
1991年 11月 第47號(125)

러시아聯邦 大統領, 보리스 옐친
모스크바, 크레믈린, 1991. 11. 6

附則第1號

1991年 11月 6日字 러시아聯邦 大統領 布告

러시아聯邦 政府構造

러시아聯邦 大統領은 政府의 首班이다.

러시아聯邦 政府 제 1副總理는 다음의 業務를 직접 調整하고 組織한다.

- 러시아聯邦 外務部
- 러시아聯邦 出版·公報部
- 러시아聯邦 法務部

러시아聯邦 政府 副總理는 經濟改革에 따른 다음의 業務를 직접 調整하고 組織한다.

- 러시아聯邦 經濟·財務部
- 러시아聯邦 國有資産의 管理을 위한 國家委員會
- 러시아聯邦 國家反獨占政策 및 新經濟構造 維持委員會
- 러시아聯邦 工業部
- 러시아聯邦 農業經濟·食料品部
- 러시아聯邦 運送部
- 러시아聯邦 通信部
- 러시아聯邦 燃料·에너지部
- 러시아聯邦 地質·自然利用部
- 러시아聯邦 建築·建設·公共事業部
- 러시아聯邦 貿易·資源部
- 러시아聯邦 科學·技術政策部

—러시아聯邦 國家北部地域(Sever)의 經濟·社會發展委員會

러시아聯邦 政府 副總理는 다음의 業務를 직접 調整하고 組織한다.

- 러시아聯邦 保健部
- 러시아聯邦 勞動·雇用部
- 러시아聯邦 教育部
- 러시아聯邦 文化部
- 러시아聯邦 社會保障部

러시아聯邦 政府 副總理는 다음의 業務를 직접 調整하고 組織한다.

- 러시아聯邦 內務部
- 러시아聯邦 國防部
- 러시아聯邦 國家保安委員會
- 러시아聯邦構成共和國 大統領(閣僚會議 議長)들과 러시아聯邦 大統領과의 관계정립업무.

附 則 第 2號

1991年 11月 6日字 러시아聯邦 大統領 布告

改革期間中 效率的 統制를 위한 中央機關(Tsentr)의 成員

- 러시아聯邦 副統領
- 러시아聯邦 大統領에 부속된 環境, 保健·傳染病 監督, 産業安全遂行의 監督, 鑛山 監督, 放射能安全 등을 위한 委員會 議長
- 러시아聯邦 大統領에 부속된 經濟的 利益保護委員會 議長

러시아聯邦 대통령에 부속된 債務償還委員會 議長

러시아聯邦 대통령에 부속된 關稅委員會 議長

러시아聯邦 대통령에 부속된 國家租稅監督委員會 議長

러시아聯邦 대통령에 부속된 國家保險監督委員會 議長

러시아聯邦 經濟改革의 財政的 保障과 財政體系의 保護에 관한 決議

1991年 11月 15日字 러시아聯邦 政府決議 第 6號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еспечению экономической Реформы и Защите Финансовой Системы РСФСР

蘇聯邦機關들의 經濟共同體條約에 직접적으로 규정된 義務 不履行은 러시아聯邦 및 聯邦構成共和國들의 條約 규정의 이행을 방해하고, 經濟的 狀況을 악화시키며, 인플레이션의 進行을 강화하고, 財政的 危機를 尖銳化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聯邦 政府는 改革의 財政的 保障의 필요와 또한 러시아聯邦의 經濟的 主權 및 貨幣의 流通·發行에 있어 필수적인 통제를 확립할 목적으로 다음을 결정한다.

1. 러시아聯邦 經濟·財務部의 組織에 러시아聯邦 財務部의 中央機關을 흡수하고 필요한 組織改編을 단행한다.
稀少金屬 및 稀少鑛物廳, 國家貴重品保管所(Gokhran SSSR) 및 舊蘇聯財務部 管轄의 國家試金監督廳을 포함하여 러시아聯邦內에 소재한 舊蘇聯財務部의 部署 및 組織들은 러시아聯邦 經濟·財務부에 예속시킨다.
2. 러시아聯邦內에 소재한 紙幣發行監督局(GPO Goznak)산하 國家生産聯合 소속의 기업 및 시설들은 러시아聯邦 經濟·財務部の 管轄로 양도된다.
러시아聯邦 經濟·財務部는 舊蘇聯에서 主權國家들에게 양도된 紙幣發行監督局의 條約 및 기타 義務의 수행을 보장한다.
3. 舊蘇聯의 財務部處 및 部署들은 일부 國家管理 기능의 讓渡에 관한 러시아聯邦 法律에 의거한 것을 제외하고 1991年 11月 20日부터 폐지한다. 舊蘇聯 中央部署의 유자격 勤務者들을 러시아聯邦 部處 및 部署의 시설에 근무하도록 하는

조치를 승인한다.

4. 러시아聯邦 經濟·財務部는 러시아연방 中央銀行과 공동으로 舊蘇聯 所有外貨의 인도와 관련한 러시아聯邦의 利益保護를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1991年 12月 10日까지 준비하고 제출한다.
5. 러시아聯邦 經濟·財務部는 金剛石 및 外貨基金의 배분과 그의 향후 사용 문제에 대한 主權國家들의 대표자로서 舊蘇聯과의 讓渡交渉의 수행에 全權을 갖는다.

Rossiyskaya Gazeta

1991年 11月 19日

러시아聯邦 大統領 보리스 옐친

모스크바, 크레믈린, 1991. 11. 15

經濟政策의 調整에 관한 白러시아,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共和國 政府의 聲明

Заявление Правительств Республики Беларусь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Украины о Координ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國民經濟 상황을 安定化하기 위해 필수적인 우리나라들간에 이루어지는 긴밀한 經
濟關係의 유지와 발전은 경제적 부흥을 전제로 형성된다.

當事者들은 다음의 조치수행에 합의한다.

- 정상적인 市場메카니즘의 형성, 所有關係의 전환, 自由企業의 보호를 목표로
통합된 急進經濟改革을 단행한다.
- 相互經濟的 損失을 야기시키는 임의의 활동을 억제한다.
- 기존 貨幣單位인 루블에 기초하여 經濟關係를 구축하고 決濟를 수행한다.
- 當事者간의 經濟的 利害의 유지를 보장하는 特別協定에 기초하여 國民通貨(독
자통화)를 도입한다.
- 貨幣發行의 제한, 通貨量의 효과적 統制 保障, 相互決濟體制의 형성을 목표로
銀行間 협정을 체결한다.
- 共和國들의 豫算赤字減縮을 위해 일치된 政策을 추진한다.
- 價格自由化 및 市民의 社會的 保護를 위해 일치된 政策을 수행한다.
- 單一經濟空間의 보장을 목적으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 對外經濟活動, 關稅政策의 수행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商品의 自由移動을 보장
한다.
- 特別協定으로 舊聯邦企業의 負債問題를 정리한다.
- 1992년 國防 및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 慘事 사태의 수습을 위한 支出 總額 및
融資節次에 대해 10일 기한이내에 합의한다.
- 各 共和國 最高會議에 租稅政策을 준비할 때 附加價值稅 統合의 필요성을 검

- 토하도록 요청한다.
- 合作會社(株式會社)의 설립을 촉진한다.
 - 12月中 共和國間 經濟協定을 실행하기 위한 機構를 구성한다.

Izvestiya

1991年 12月 9日

백러시아공화국 V. Kebich

러시아공화국 G. Burbulis

우크라이나공화국 V. Fokin

舊蘇聯 共和國의 交易 · 投資環境 評價

(A : 최고, D : 최저)

區 分	러 시 아	우크 라이 나	벨로 루시	리투 아니 아	라트 비아	에스 토니아	폴 도 바	그루 지아	아제 르바이잔	아르 메니아	카 자흐	우즈베크	키르 기즈	타 직	투르 크멘
總 計	B	B	C	B	A	A	D	D	D	C	C	D	E	E	D
經濟全般															
-經濟狀況	D	C	C	D	D	C	C	E	E	E	C	D	D	D	C
-改革展望	A	B	C	B	A	A	B	D	D	C	B	C	C	C	C
-인플레이션	D	D	D	C	C	C	D	D	D	D	D	D	D	D	D
-EC市場에서의 진출여건	C	C	C	B	B	B	D	D	D	C	C	D	D	D	D
勞動市場															
-教育 및 勞動熟練度	B	B	B	B	A	A	D	C	D	B	C	E	E	E	E
-勞動倫理 및 紀綱	C	C	C	A	A	A	C	B	D	B	C	D	D	D	D
市場規模															
天然資源 賦存度	A	B	C	D	D	E	D	D	D	D	C	C	E	E	D
인프라	A	B	D	E	E	E	D	D	D	D	C	D	D	D	D
外國人 投資 許容度	B	B	B	A	A	A	C	D	D	B	D	D	D	D	D
外國으로부터의 援助展望	C	C	C	C	B	B	D	C	C	D	C	D	D	D	D
政治展望															
-政治安定	B	C	C	A	B	B	D	E	D	D	B	D	D	D	D
-民主傳統	C	C	D	B	B	B	D	E	E	D	D	D	D	D	D

資料 : PlanEcon (1991)

러시아聯邦內 新興 改革派 經濟官僚의 名單 및 엘친 側近의 權力構造

〈經濟閣僚 名單〉

Gennadii Burbulis

- 스베르들로프市(現 에카제린부르크) 철학아카데미 후보, 蘇聯人民代表者會議 代議員
- 엘친에 의해 러시아공화국 最高裁判所 所長에 임명
- 現 러시아공화국 國務長官에 해당하는 러시아공화국 國家委員會(Gossoviet RSFSR) 議長 및 第 1副總理

Yegor Gaidar

- 프롤레타리아 아동문학 작가의 孫子, 經濟學 博士
- 聯邦經濟豫測研究所 근무
- 코뮤니스트지의 경제부 부장(同 雜誌는 최고의 경제이론지가 됨)
- 프라우다지 편집인
- 經濟政策研究所 所長
- 現 경제담당 副總理兼 經濟·財務長官

Aleksandr Shokhin

- 經濟學 博士
- 蘇聯科學아카데미 수리경제연구소(Tsemi AN SSSR) 근무
- 세바르드나제와 함께 외무부에서 근무
- 세바르드나제가 辭任하기 직전까지 외무부 對外經濟關係局에서 근무
- 1991년 8월부터 러시아공화국 노동부 장관

Konstantin Kagalovskii

- 經濟改革研究國際센터 所長
- 가이다르 경제팀의 참모

Andrei Nechaev

- 聯邦經濟豫測研究所 근무
- 가이다르가 所長으로 있던 經濟政策研究所의 副所長
- 고스플란의 일부기능을 흡수하여 만든 國家投資 및 收買委員會 委員長으로서 재정담당 第 1次官

Evgeni Saburov

- 前 경제부 장관, 부르블리스 경제팀과의 經濟改革路線 투쟁에서 패배 辭任

Vladimir Lopukhin

- 聯邦經濟豫測研究所 근무
- 燃料 에너지공업부 次官

Ivan Materov

- Gosplan 근무
- 國家豫測委員會 議長

Anatoly Chub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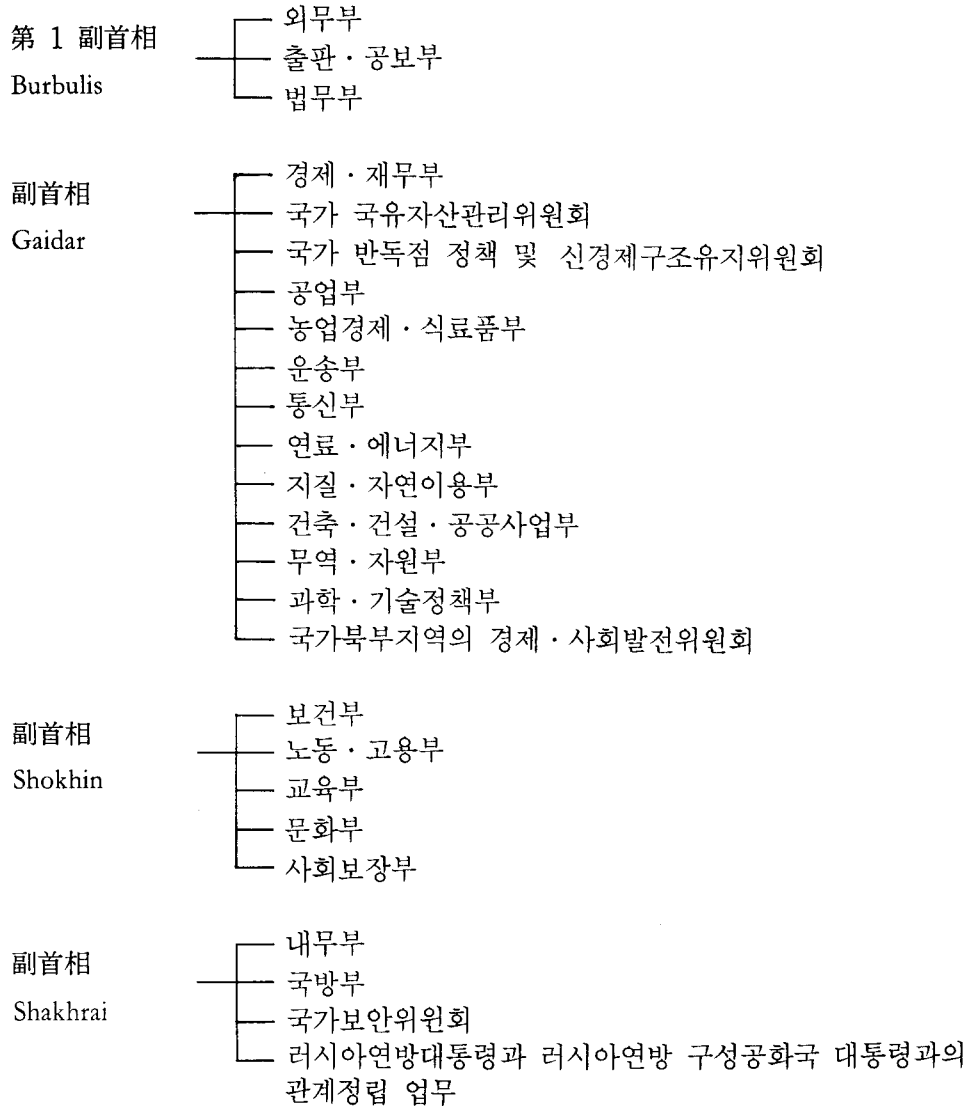
- 페트로그라드 出身, 經濟學者
- 現 私有化 담당 國家所有委員會 委員長

Boris Fedor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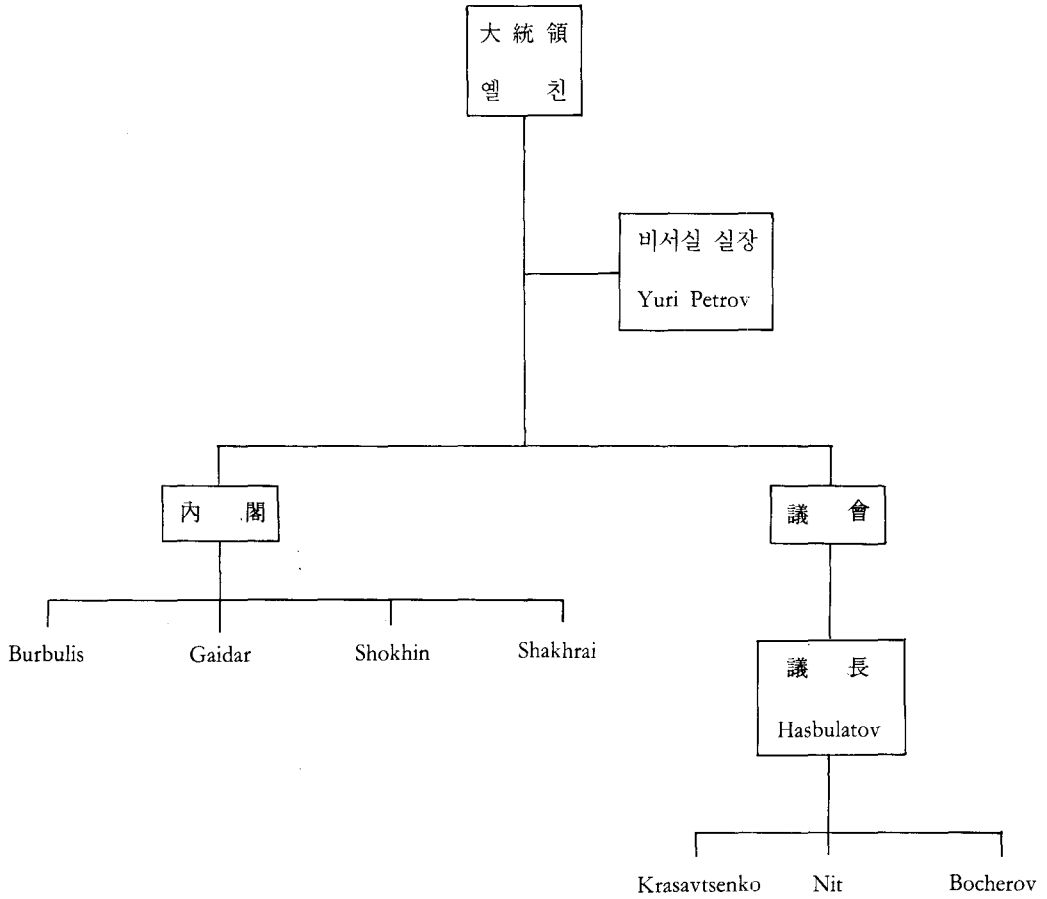
—前 러시아공화국 재무장관

—現 EBRD 러시아聯邦 대표로 근무

〈러시아聯邦 內閣 構成圖〉



〈열친 側近의 權力構造〉



〈参考文献〉

- Goskomstat RSFSR, *O Funktsionirovanii Narodnogo Khozyaystva RSFSR v Yanvare — Oktyabre 1991 goda*, Moskva 1991g.
- Goskomstat SSSR, *Narodnoe Khozyaystvo SSSR v 1989g.*, Moskva, 1990.
- Goskomstat SSSR, *O Rabote Narodnogo Khozyaystva Strany v Yanvare — Oktyabre 1991 goda*, Moskva, 18 Noyabrya 1991g.
- Institut Ekonomicheskoy Politiki, *Sovetskaya Ekonomika Letom 1991 Goda Tendentsii i Perspektivy*, Moskva Avgyst 1991.
- Institute for Systems Research, *Paths of Development for the East European Countries and the Soviet Union till the Year 2006*, Hannover, Oct. 1991.
- Izvestiya*, 1991. 11. 15.
- Izvestiya*, 1991. 12. 8.
- Jeffrey Sachs, “Helping Russia Goodwill is not enough”, *The Economist*, Dec. 21, 1991.
PP.101-104
- Kommersant*, 1991. 9. 30.
- Komsomolskaya Pravda*, 1991. 9. 1.
- Nezavisimaya Gazeta*, 1991. 11. 9.
- PlanEcon, *PlanEcon Report Regional Aspects of the Soviet Economy*, Jan. 15, 1991.
- PlanEcon, *PlanEcon Review and Outlook*, Nov. 1991.
- Pravitelystvenny Vestnik*, 1991. 11. No.47(125)
- Rossiyskaya Gazeta*, 1991. 11. 19.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July 1991.
- ラチオプレス, ソ連政策動向, 1991. 11. 30., 1991. 12. 15.
- 産経新聞, 1992. 1. 3.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國際經濟情報 最近號.

정책자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1992年 1月 18日 印刷

1992年 1月 20日 發行

發行人 金 迪 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 江南區 大峙3洞 942番地 海성빌딩 18-19층

電話 : 519-3333, FAX : 519-3311, 3322.

登錄 : 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